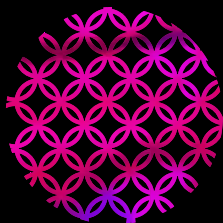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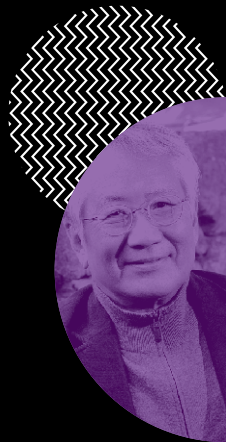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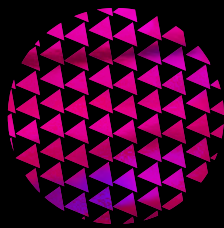


예술과 만남

12+01 2022 + 2023 Vol. 159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이달의 레퍼토리

팬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

연출과의 만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2 : 묵(默)>
예술감독 이진용

이달의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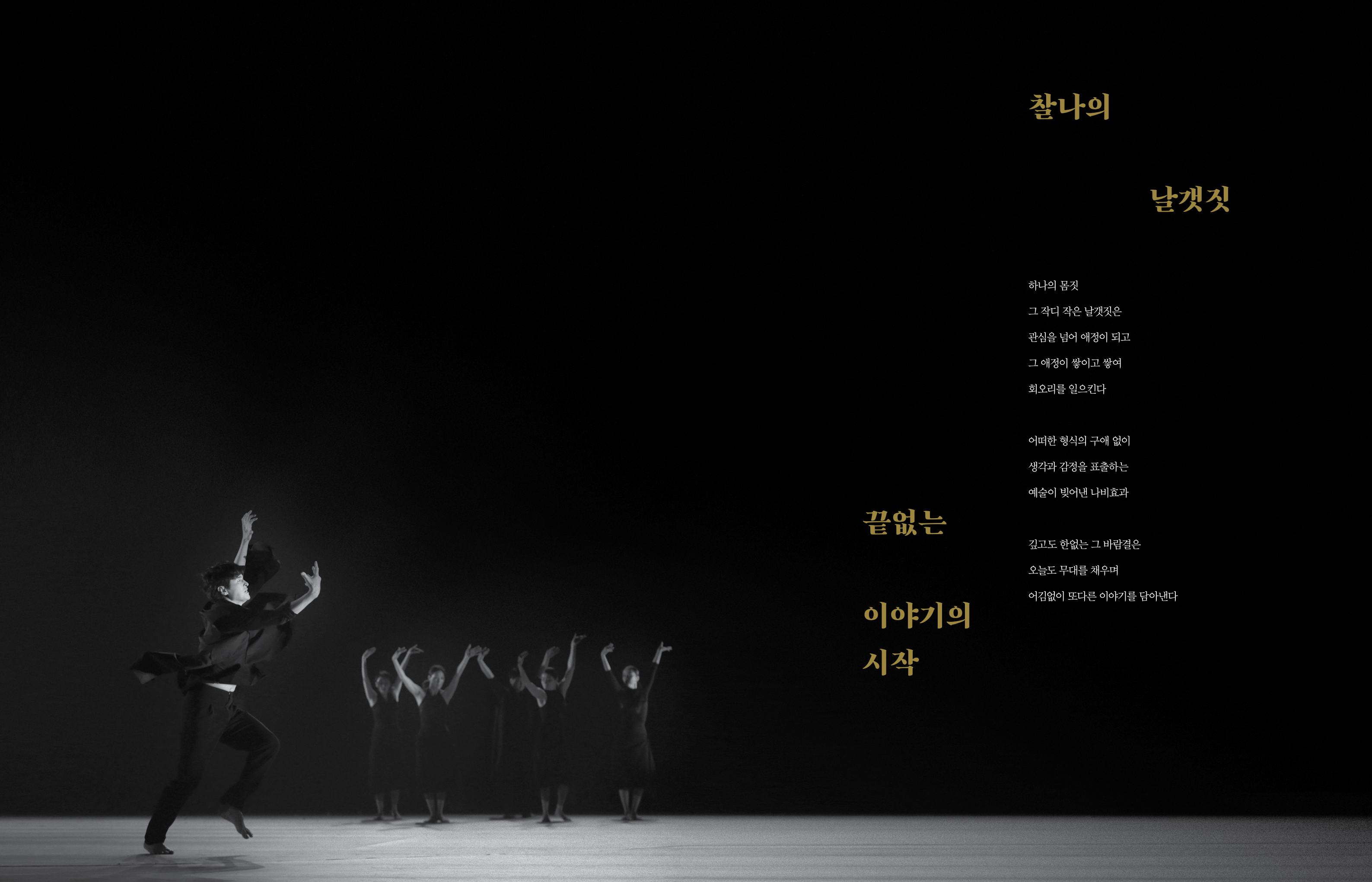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건네는 안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

리뷰, 하나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낳은 비극

컬처로드

새로운 대화를 일으키는 통로, 공공미술의 힘



찰나의

날갯짓

하나의 몸짓

그 작디 작은 날갯짓은

관심을 넘어 애정이 되고

그 애정이 쌓이고 쌓여

회오리를 일으킨다

어떠한 형식의 구애 없이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예술이 빚어낸 나비효과

깊고도 한없는 그 바람결은

오늘도 무대를 채우며

어김없이 또다른 이야기를 담아낸다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2년 12 + 2023년 1월호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신명호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 허명현, 탁나희, ACE(예술과만남 편집회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ISSN 2234-5949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GGAC's Theme

08 오(oh),피니언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문화예술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서

12 이달의 레퍼토리
팬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

16 연출과의 만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2 : 묵(默)>
예술감독 이건용

20 이달의 아티스트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건네는 안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

24 내다보기
한 해의 마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경기도



28 프리뷰, 하나
<Concert Meditation 반향 2022 : 묵(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음악명상콘서트

30 프리뷰, 둘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 파보 예르비>
세계 최고 챔버오케스트라, 4년 만에 한국 찾는다

32 프리뷰, 셋
<토크콘서트 : 12월의 랑데북>
감성 가득한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대

34 리뷰, 하나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낳은 비극

36 리뷰, 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
꾸준한 실험과 확장... 가장 진화한 '오늘의 음악'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 만나보세요!



ONE Talk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만화도 미학을 알고 보면 심오하고 재미지다

44 트윙작
아트테이너(Artainer), 생태계 교란일까, 확장일까?

46 컷처로드
새로운 대화를 일으키는 통로, 공공미술의 힘

50 예술 알고리즘
장애인의 접근성을 무대로 드러내는 기술

54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GGAC's 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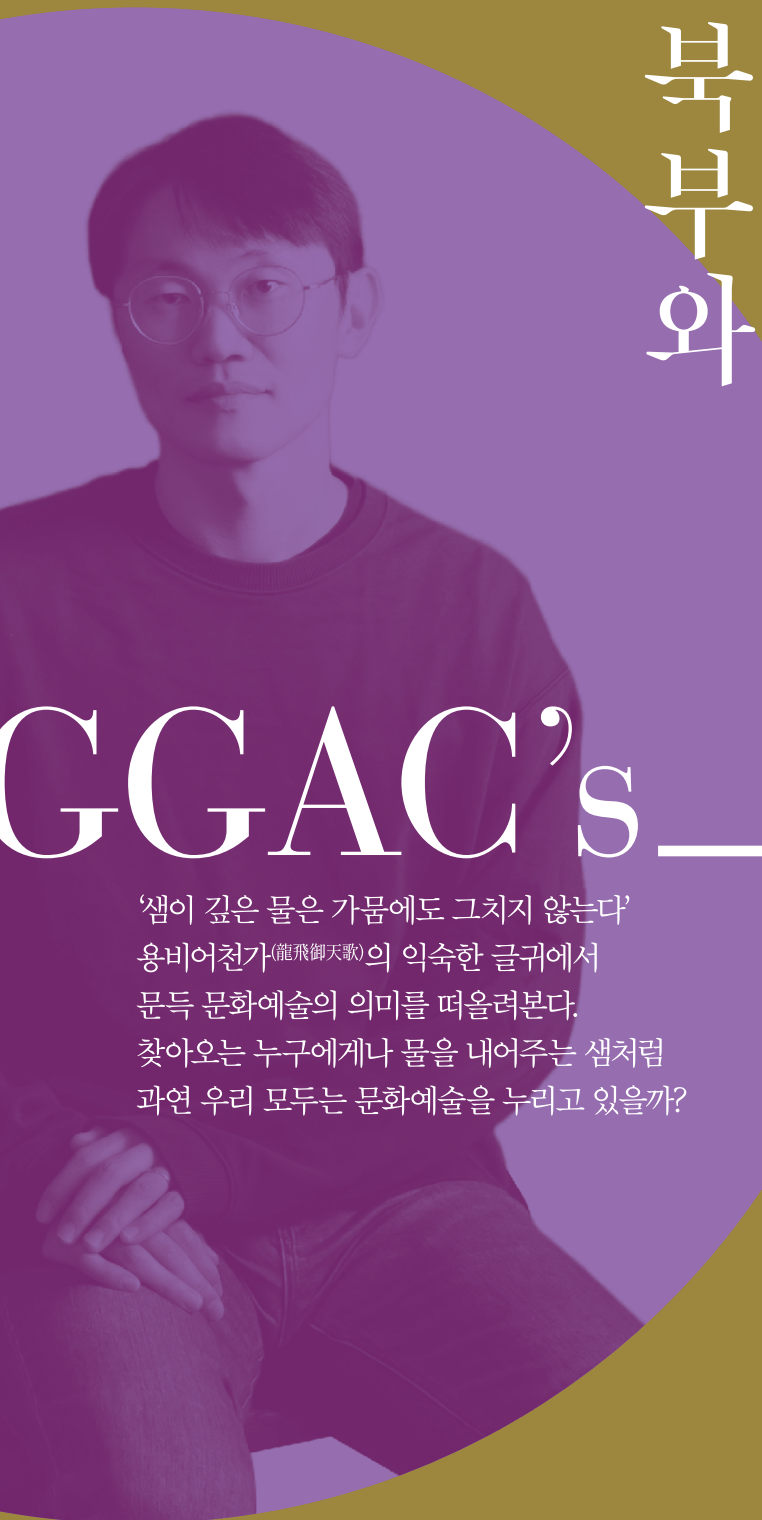
58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이야기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예술과만남 TF팀 ACE

60 GGAC 윈터 스페셜
GGAC에서 즐기는 겨울 콘서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AR
2022년 12월·2023년 1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북부와

GGAC's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익숙한 글귀에서
문득 문화예술의 의미를 떠올려본다.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물을 내어주는 샘처럼
과연 우리 모두는 문화예술을 누리고 있을까?



샘물이 마르지 않는 건, 고이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다.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이 지역 곳곳에 흐르고
이내 스며들어 일상을 물들이길 바라며
북부와 남부 사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면 꽃과 열매를 맺지 않을까?

Theme

남부
사——이

경기도 북부와 남부, 문화예술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2023년 계묘년에 경기도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의 시기를 맞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역문화는 지역은 물론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힘ियो, 뿌리다. 성공한 문화 콘텐츠는 수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세계 곳곳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린 문화예술 콘텐츠와 축제는 세계인의 발길을 모은다. 이처럼 경기도 역시 문화예술 콘텐츠, 축제 진흥과 세계화는 꼭 필요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프랑스 '프리쉬 라 벨드 메'
(출처: La Friche de la Belle de Mai)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과제

세계적인 지역축제 중에서 프랑스 마리오네트 국제 인형축제는 1961년 작크 펠릭스(Jacques Felix)라는 예술가가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인형극 축제로 성장했고 오늘날 세계인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 지역의 폐허가 된 담배 공장부지를 재생해 만든 '프리쉬 라 벨드 메'(La Friche de la Belle de Mai)는 매년 45만여 명이 방문하는 마르세유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의 유적을 아카이브하고, 주민과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또한, 프랑스 파리에는 소르본 대학을 지나 라틴 지구를 걷다 보면 헤밍웨이 거리 무프트르(Mouffetard) 거리가 있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파리의 가장 오래된 거리, 카르디난 르모안가 74번지 허름한 아파트 3층에서 소설가 헤밍웨이는 1922년부터 1923년까지 신혼살림을 살았다. 콩트르스카프 광장에서 제임스 조이스와 만나 차를 마시고 문학을 이야기했다. 그의 불꽃 같은 예술혼에 잠시 감전이라도 될 것 같은 이곳은 필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파리지앵과 관광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경기 지역의 문화예술은 이에 못지않은 훌륭한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 이를 세계화하는데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 요소, 즉 지역의 특색있고 확장성 있는 전통문화, 문화예술양식, 생활양식,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더하여, 예술가의 창의성, 기술,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지역 문화예술은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길

유럽 등 여행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지역적 문화예술, 축제를 성공

시킨 현장을 보고 평소 느낀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인식은 기존의 타 도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따라하지 않고 각 지역만의 차별적인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 인물, 예술가 활동 등을 바탕으로 그 도시만의 특색 있고 확장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한다. 타 도시의 성공한 문화예술 정책 등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과 융합해야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기식의 지역 특색과 관

련 없이 중복된 문화예술 행사를 시행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며 결코 지역 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문화원, 문화재단, 아트센터, 문화예술단체 등의 예술경영 전문가, 예술가, 인사들이 각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진흥위원회 구성 등 통합된 의식과 실천이 중요하다.

필자는 예술대학 교수로서 대학의 콘텐츠를 지역과 연결시켜 창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키워 나가는데 큰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에 인문 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광주시에서 출생한 세계적인 민주헌법 제정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해공 신익희를 연구, 교육하는 ‘해공 신익희 연구소’를 설립, 매년 문화예술제를 개최해서 그 가능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발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는 열다섯의 나이에 시집과 봉건주의 비운의 삶 속에서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는 시를 남기고 27살에 생을 마감한 최초의 한류 예술가 허난설헌이 잠들어 있다. 중국과 일본이 극찬했던 그녀의 작품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를 만들고 세계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광주시 남종면에는 세계극예술협회 회장인 연극 연출가 김정옥이 50여 년간 수집해온 선조들의 석인(石人)·목각인형, 도자기와 세계 각국의 인형, 사람의 얼굴을 본뜬 와당 등 1,00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박물관얼굴>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고전영화 보기 모임, 연극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공간을 지역적 특색이 담긴 뮤지엄 씨어터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상 광주시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의 실례를 들었지만 타 도시에도 지역에 특색에 맞는 수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시행하고 있고 진흥시킬 수 있는 높은 잠재성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주민-예술가-지자체-중앙정부의 의식의 문제이다. 이는 일상 안에서의 지역에 기반한 세계적인 축제를 지역민들이 함께 키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축제와 지역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과 자부심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부심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셋째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 기반 완성을 위해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덧붙여 주민 문화행복지수의 관리가 필요하다. 문화향유를 통한 행복지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해서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문화향유지수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해공학술문화제

4 박물관얼굴 고전영화 상영회

5 박물관얼굴 외관



경기 남북

문화예술 진흥 협력위원회
설립 제안

경기도 북부, 남부의 도시들은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세계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자생적으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31개 시군, 1,4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 경기도는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 규제, 인식 등으로 경제, 문화의 인프라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부에 비해 북부의 문화예술이 소외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전체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지역별 균형적인 문화예술 도시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경기아트센터가 해내리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이를 위해 경기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의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가칭 ‘경기 남북 문화예술 진흥 협력위원회(경문협)’ 설립을 제안하고 싶다. 각 시군의 의견을 통합해서 보다 많은 공감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창조하고 발전, 홍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가칭 경문협이 지역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진흥 방안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 예산수립 및 건의, 전문 인력 자문 및 교육 등을 시행한다면 균형 잡힌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를 통해 지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했다. 수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문화산업은 이제 지역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이 됐다. 최근 K-컬처가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는 이때 경기 남북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세계화, 그리고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

글 — 이창복

시인/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미디어 스토리텔링 전공 교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해공 신익희 연구소’ 설립해서 소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광주시 문화재단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팬데믹 이후 뮤지컬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

대면을 근본으로 하는 공연계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한 곳이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섯다운(Shut Down)을 통해 공연계가 멈추는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우리 공연계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잘 따르며 지난 2년을 버텼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공연시장 회복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을 넘어선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2022년 국내 뮤지컬 시장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코로나19가 활킨 공연계

장르	2019년	2020년	2019년 대비
콘서트	247,407	38,916	16%
뮤지컬	213,740	76,563	36%
연극	29,688	9,351	31%
클래식/오페라	26,404	4,324	16%
무용/전통예술	10,409	1,202	12%
합계	527,648	130,356	25%

표1 2019년, 2020년 인터파크 티켓 판매액 비교

2020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시장의 피해는 막심했다. 국가의 대응 방식도 확진자 수에 따라 달라졌다. 초기에는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로 공연 취소가 이어졌다. 국립극단의 <화전가>, 서울시무용단의 <쑈 N.O.T> 등이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었고, 국방부가 제작한 <귀환>, 지역 문화회관이 주체하는 뮤지컬 <팬레터> 안양 공연 등이 막을 올리지 못했다. 관객들이 현저히 줄어들자 민간 공연 중에서도 약속된 기간을 다 하지 못하고 조기 종연하거나 공연을 포기하는 작품들이 생겨났다.

이후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 한 자리 띄어앉기, 두 자리 띄어앉기, 동반자 간 띄어앉기 등 좌석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공연 제작사는 예약 취소와 변경을 무한 되풀이하며 불안한 공연을 지속해야 했다. 힘겨웠던 공연계의 어려운 현실은 수치적으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0년의 티켓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공연시장은 전년도 대비 25%에 불과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무용/전통예술의 피해가 컸는데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2%에 불과한 시장 규모였다. 그나마 뮤지컬과 연극이 30%대의 시장을 유지하면서 타 장르에 비해 시장을 지켜냈다. 특히 공연시장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뮤지컬 장르가 평균보다도 10% 이상 높은 전년 시장의 36%를 유지한 것이 주효했다. 반면 공연시장의 또 다른 축인 콘서트 시장은 전년 대비 16%로 큰 타격을 입었고, 해외 아티스트의 투어 콘서트나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동원되는 대형 콘서트가 어려워지면서 콘서트 시장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1. 뮤지컬 엘리자벳
©EMK뮤지컬컴퍼니
2, 3. 좌석 간 거리두기

빠른 회복세를 보인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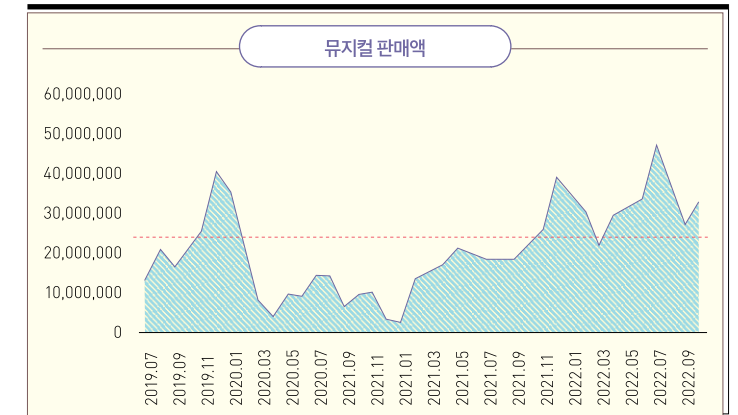


표2 2019년 7월~2022년 9월 월별 뮤지컬 판매액(KOPI스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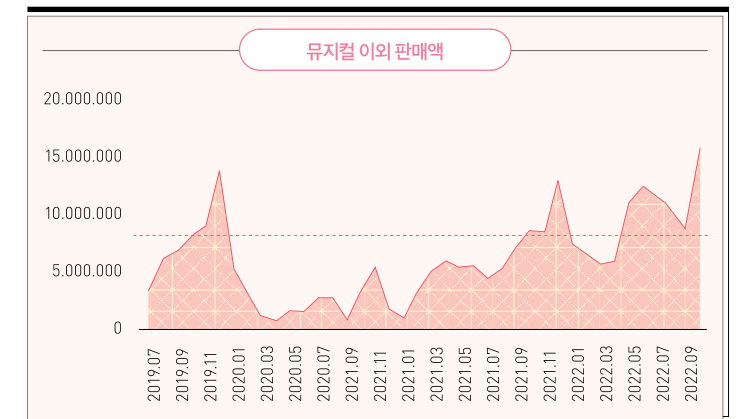


표3 2019년 7월~2022년 9월 월별 뮤지컬 이외 장르 판매액(KOPI스 데이터)

전년 대비 30%로 축소된 2020년 공연시장은 2021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21년 2월 1일 두 좌석 띄어앉기가 동반자 간 띄어앉기로 바뀌면서 공연장 좌석의 70% 정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대중들의 피로도가 짙어지고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워드 코로나로 전환이 언급되던 시점이었다. <표3>에서 월별 판매율 추이를 보면 2019년 7월부터 연말로 향할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2, 3월은 공연 비수기로 평균치보다 시장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월 매출액은 급감하기 시작한다. 뮤지컬과 뮤지컬 이외 장르의 회복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2021년 9월이 되어야 예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로는 뮤지컬 장르와 뮤지컬 이외의 장르의 매출액이 예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판매율만 따진다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평균 매출액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매출액 증가는 장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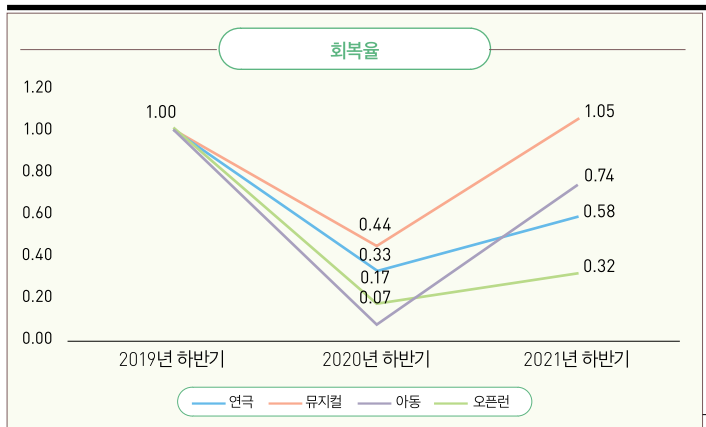


표4 2019년 하반기 기준 장르별 코로나 회복율(KOPIs 자료 재구성)

2019년과 2020년, 2021년 하반기(7월~12월) 시장을 비교한 결과 2019년 시장을 기준값 1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 하반기 아동공연은 7% 수준으로 떨어졌고 뮤지컬이 44% 수준, 연극 33%, 오픈런 17%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모든 장르가 크게 피해를 입었지만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물이나, 젊은 대중 관객을 타겟으로 하는 오픈런* 공연의 피해가 특히 컸다. 2021년 하반기에 이르게 되면 뮤지컬의 경우 오히려 2019년 규모를 넘어섰지만, 연극은 58%, 오픈런은 32%, 전년도 7%까지 떨어졌던 아동공연은 2021년 74%까지 회복하였다. 이처럼 장르별로 회복도가 달랐다.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공연시장을 버텨준 것도 뮤지컬이었고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것도 뮤지컬이었다. 2021년 중반부터 대형 뮤지컬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못지않게 관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젊은 관객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카고>의 경우 2018년 공연에서는 20대 비율이 33%에 불과했지만 2021년 공연에서는 58%로 높아졌다. 당시 <시카고>에는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출연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특히 복화술 연기 영상이 젊은이들이 주로 애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이슈가 되었다. 이전과 다르게 20대 관객 비중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은 뮤지컬 <시카고>를 비롯 <위키드>, <팬텀>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 오픈런 : 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것



4. 뮤지컬 팬텀
©EMK뮤지컬컴퍼니
5. 뮤지컬 귀환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6. 뮤지컬 팬레터
©콘텐츠 제작사 라이브(LIVE)
7. 뮤지컬 엘리자벳
©EMK뮤지컬컴퍼니
8. 뮤지컬 화전가
©국립극단
9. 뮤지컬 화전가
©신시컴퍼니



● 팬데믹 이전 규모를 넘어선 2022년 공연시장 ●

공연계는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배우들의 확진으로 공연 일부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올해 4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이외에 거의 모든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 했다. 여전히 오픈런 공연의 경우 시장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는 등 단체나 장르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규모로만 보았을 때 2022년 공연시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시장보다도 크게 성장한 결과를 기록할 것이다. 특히 올해 뮤지컬 시장의 경우 2018년 3,600억 원 최고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연 성수기인 11, 12월 공연시장을 남겨둔 현재 올해 뮤지컬 매출액은 3,340억 원 (11월 9일까지 합계)으로 성수기 매출액이 더해진다면 2022년 뮤지컬 시장은 처음으로 4,000억 원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표2>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2021년 9월 이후 뮤지컬의 월 매출액은 거의 매달 평균 매출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했고, 뮤지컬 이외 장르 역시 공연 비수기인 2, 3월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 평균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올해 뮤지컬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진단한다. 코로나19로 그동안 비대면 사회에 갇혀 있던 대중들이 대면의 즐거움과 기쁨을 즐기기 위해 공연장으로 몰려들었다고 보기도 한다. 한국은 섣다른 없이 공연을 이어오면서 팬들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자 공연장으로 몰려들게 된 것이다. 또한 콘서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디면서 콘서트를 즐겼던 20대 관객층이 코로나19 시기에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는 대형 뮤지컬로 뮤지컬 장르를 경험한 후, 엔데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탈하지 않고 대중 뮤지컬을 관람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시장 매출을 올렸다. 팬데믹에 대한 경계가 완화되면서 뮤지컬 제작사들은 그동안 자사가 보유한 가장 히트한 콘텐츠를 무대에 올렸다.

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 오를 <엘리자벳> 역시 초연부터 히트했던 작품으로 10주년을 맞은 올해 김준수, 박은태, 신성록, 이지훈, 옥주현 등 스타들을 캐스팅하여 좋은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라인업과 대면 공연의 갈증에 목말라하는 관객들의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2022년 뮤지컬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한해를 맞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협적이고 언제든 공연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과 주조연급 배우들의 출연료 상승, 경제 불안의 상황에서 뮤지컬 시장의 양적 성장을 마냥 반가워하기도 힘들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내실도 채워가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건강한 공연 생태계를 지켜나갈 힘을 길러야 한다. ◀

글 — 박병성

2001년부터 18년간 뮤지컬 전문지 [더뮤지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뮤지컬을 접하고, 창작자를 만나 뮤지컬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종이 매체를 넘어서 영상과 오디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뮤지컬 매체에 관심을 두고 뮤지컬 모바일 북, 뮤지컬 유튜브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고 있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2 : 묵(默)>

예술감독 이건용

침묵으로부터 탄생한 내면의 소리

글 이준희
사진 박기현

2019년 처음 선보인 후 매년 12월이면 찾아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음악 명상 콘서트 <반향>. 올해도 ‘묵(默)’이라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네 번째 무대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처음 호흡을 맞춘 작곡가 이건용 예술감독으로부터 공연을 준비해온 과정과 소회를 들어보았다.

반향의 의미를 찾기 위한

침묵

2022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음악 명상 콘서트 <반향 2022 : 묵(默)>은 한국 창작음악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온 작곡가 이건용 예술감독의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ARKO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용 예술감독은 그동안 많은 창작 가곡과 합창곡 그리고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국악기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작품도 적지 않다.

“처음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서 <반향 2022>를 맡아달라고 부탁해왔을 때, ‘반향’[reflection]이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뜻으로 음악을 만들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예술감독직을 수락하고 콘서트 구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반향’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반향은 뭔가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반향과

가장 반대되는 행동이 뭘까 생각해보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을 멈춰야 반향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요. 거기서 묵(默)이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반향’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할 방법으로 이건용 예술감독은 ‘침묵’을 생각해냈지만, 그 침묵하는 동안에는 겉으로 조용히 있어도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각자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진정한 반향을 하려면 단순한 침묵을 넘어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선승들이 화두를 줌으로써 온갖 생각이 머리와 마음속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죠. 또 어떤 때는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주문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마음과 소리로 계속 반복해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집중하거나 다스리죠. 이렇게 ‘묵(默)’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경지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번 콘서트를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용
Kun-yong Lee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란 점에서 저녁은 모든 사람이 일종의 반향을 하는 시간이지요. 반향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기회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필수적으로 갖고, 가져야 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 ©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GYEONGGI SINAWI ORCHESTRA & ART DIRECTOR KUN-YONG LEE

침묵의 수행을 음악으로

구현한 역설

보통 음악회는 관객이 모인 음악회장이란 무대 위에서 소리를 내서 주제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침묵의 수행’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소리를 죽이며 보이지 않는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러한 이중의 역설을 콘서트로 구현하기 위한 문제를 이견용 예술감독은 어떻게 풀어냈을까.

“사실 진짜 ‘침묵의 수행’을 하려면 조용한 산사나 수도원에 가야겠죠. 하지만 음악으로 이를 소화하기 위해 ‘나 혼자 스스로 작곡이란 행위를 수행처럼 해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안에 축적해온 여러 음악과 기법, 그리고 나의 습관과 좋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제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음악을 꺼내 보자고 생각하면서 수행하듯이 음악을 한 소절 한 소절 만들어간 거죠.”

그동안 작곡하면서 늘 적용해오던 음악의 논리와 정해진 형식, 문법을 다 버리고 작업에 임하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치 유목민이 배낭 하나 둘러메고 초원이나 황무지처럼 아무 표지판이나 길도 없는 곳을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 속에서 그는 그동안 음악을 상투적으로 만들어왔다는 반성과 함께 새롭게 음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이번 기회에 제 내면에 담긴 음악을 돌아보면서 제가 좋아하던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황무지를 방황하던 세 무리의 사람들이 천둥에 길을 물으니 천둥이 각자에게 “다(Da)”라고 대답했는데 각각 ‘다타’(Datta), ‘다야드밤’(Dayadhvam), ‘다미아타’(Damyata)’로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각각 ‘배풀라’, ‘소통하며 공감하라’, ‘스스로 삼가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황무지를 꽃피는 동산으로 만드는 대답이 아닐까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 ‘반향’을 주제로 한 성악 앙상블 <천둥의 말(What the Thunder Said)>과 국악관현악곡 <묵(默)>을 신작 초연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생활에서 해온 반향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이번 <반향 2022 : 묵(默)>에서는 말과 음악을 통해 명상음악에 깊이를 더할 신작 <천둥의 말>, <묵(默)>과 함께 과거 이견용 예술감독이 작곡했던 <저녁노래> 시리즈 중 첼로 독주를 위한 <저녁노래 2>와 가야금 4중주를 위한 <저녁노래 4>를 감상할 수 있다. 이견용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에서 외부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과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침묵’을 대비시킴과 동시에, <저녁노래> 시리즈를 통해 ‘낮’과 반대되는 ‘저녁’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

“우리는 아침에 밖으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쉬죠. 물론 밖에서 파티를 즐기기도 하지만, 결국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잠들죠. 이런 저녁의 모습도 크게 보면 반향인 거예요. 자기 삶을 밖으로 펼쳤다가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란 점에서 저녁은 모든 사람이 일종의 반향을 하는 시간이지요. 반향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기회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필수적으로 갖고, 가져야 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견용 예술감독은 12월 3일 <반향 2022 : 묵(默)>이 열리는 남양성모성지에 처음 들어선 순간 이번 공연에 딱 맞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회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무언가 되돌아보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곳으로서 그동안 준비해온 ‘침묵의 수행’의 결과를 보여줄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는 12월 2일 이 공연이 열릴 경기아트센터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연을 함께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에 대한 칭찬도 잊지 않는다.

“최고의 악단은 각자의 기량이 뛰어나야 하고, 예술을 위해 단합해서 음악을 만들어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정진해서 새로운 세계를 자주 펼쳐나가야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의 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연습에서부터 단원들의 호기심과 의욕을 느꼈구요. 함께 소통하며 공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울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리 자신의 안과 밖을 향하는 시선,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꽃 피는 봄과 열매 맺는 가을의 계절 속 어디에나 반향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 <반향 2022 : 묵(默)>은 바쁜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자연의 섭리와 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자,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으로도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

동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건네는
안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금 살아가며 힘든 시기를 마주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고마운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2000년대 청춘의 시간을 버텨온 세대에게 '브로콜리너마저'의 존재가 바로 그렇지 않을까? 비록 개개인의 사정으로 멤버 전원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라디오와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낯익은 윤덕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와 반가움은 아쉬움을 채우고 남았다.

글 편집부
사진 강권신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아서

브로콜리너마저는 덕원(보컬, 베이스), 잔디(보컬, 키보드), 류지(보컬, 드럼)로 구성된 3인조 밴드다. 참신한 가사와 멜랑콜리한 사운드로 인디씬에서 주목을 받았고, 2007년 EP <앵콜요청금지>가 히트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 2008년 1집 <보편적인 노래>를 통해 '청춘의 감수성'을 대표하며 대중음악계에 자리를 잡았다. 오는 12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될 <랑데뷰> 공연을 앞둔 밴드의 최근 근황에 대해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처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4집을 준비하는 틈틈이 연말 공연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는 첫 싱글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공연을 업으로 살아가는 대중가수이기에 2년 여의 시간이 녹록지 않았을 터, 지난해 발표한 앨범 타이틀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할 거 같아서'가 말해주듯 지금껏 해왔던 일들을 이어나가기 위해 SNS, 유튜브, 브이로그 등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011년부터 시작한 밴드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이른 열대야'를 곳곳하게 이어온 것이다.

“자칫 정체되기 쉬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진표와 문향을 만드는 등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출신으로 보건학을 전공한 멤버 잔디의 역할이 컸어요.”

9번째 시리즈를 맞은 올해는 '전국투어'와 '다양한 밴드'를 만나는 것 두 가지를 중시해 놓고 공연을 기획했다. 그렇게 5개의 도시에서 10팀의 게스트와 함께 진행한 '이른 열대야 2022 전국! 인디-자랑'은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전국의 인디밴드와 함께하며 눈길을 끌었다.

“데뷔 후 줄곧 모든 일을 직접 기획하다 보니 세월이 쌓인 만큼 진행이 수월해진 게 있죠. 무엇보다 '중학교 때 좋아했다'는 후배 밴드들의 반응 덕분에 '우리가 오래 하긴 했구나' 느꼈습니다.(웃음)”



Yoon, Deok-won

브로콜리
너마저

보통의 하루,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

오랜 시간 잘 숙성된 밴드를 만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변화를 멈추지 않고 성장해온 음악에서, 그들의 흐름과 역사를 유추하는 일은 그 나름대로 흥미진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1집에는 '앵콜요청금지'처럼 20대의 발랄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그리는 곡들이 담겼다. 2집에선 '졸업'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 세대의 고달픔, 씁쓸함 등을 노래했다. 3집, '속물들'은 청춘 이후 30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과 고민을 이야기했다.

결성 후 16년 동안 브로콜리너머지는 멤버 모두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밴드가 됐다. 각각의 개성만큼 담고 있는 이야기도 보여줄 수 있는 스펙트럼도 넓어졌다.

흔히 그들을 소개할 때 빠짐없이 '위로'라는 단어가 붙지만, 정작 그는 특별히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음악은 아니라고 고백한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어 '보편적인 노래'로 만들어졌다고.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에게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 같을 것이고, 그래서 크게 공감을 해주신 곡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저희 곡을 들으면서 그저 보편적인 정서를 은유적으로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외적으로 멤버들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집과 3집 사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는 역할은 덕원의 창작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아이가 생기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지요.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결합되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을 기점으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껴요."

아이와 최대한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배분하는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는 밴드 활동을 하면서도 생활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처럼 워라벨,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16년 장수밴드를 지켜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시기,
최선을 다한 모두가
원하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랑데북>이 무대와 객석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응원하며
부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변함없이 안도와 위로를

전해주는 노래

알듯게도 지속가능한 밴드의 필수조건은 결국 상업적인 결과이다. 싱어송라이터 덕원에게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하는 창작에 대한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내공과 여유가 느껴졌다.

"어렸을 때 작업 과정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이 술한 실수의 결과물이었어요. 재밌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전에 했던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것 같아, 되려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흔히 창작력은 나이에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나 시간 등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해오던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에 더해 '노래를 발표하는 순간부터 창작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였다. 짧지 않은 시간, 활동을 이어오며 내가 부르는 만큼 곡의 생명력도 한층 오래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신중하게 고른 단어들로 써 내려간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기교 없이 진심을 다해 부르며 그들의 나이 앞자리 숫자가 두 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브로콜리너머지는 그럼에도 변함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안도와 위로를 전해주는 밴드다.

끝으로 덕원은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12월 랑데북>에서 들려주고 싶은 곡으로 '잊어버리고 싶어요'를 꼽았다.

"잊어버리고 싶다는 말은 잊을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쉽게 잊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괴롭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 브로콜리너머지, '잊어버리고 싶어요' 앨범 설명 글귀 중 -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잘 잊어버리는 게 중요하다. 반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고민되는 요즘이다.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시기, 최선을 다한 모두가 원하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12월 15일 <랑데북>이 무대와 객석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응원하며 부디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한 해의 마무리!

반짝반짝 빛나는 경기도

어김없이 다가온 12월, 여기저기 들려오는 캐럴과 곳곳에서 보이는 초록빛 트리는 연말을 실감케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아이같은 마음으로 설레는 이 계절이 돌아오면 뭔가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올해는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야 좋을지 고민인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친구, 연인, 가족, 동료... 누구나 빛나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하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77, 프로방스 마을

우리만의 특별한 인생샷을 남기는 러브 인 프로방스 빛축제

한겨울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프로방스 마을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 형형색색의 빛과 꽃이 이루어진 '러브 인 프로방스 빛축제'는 인접한 빛축제장과 차별화된 연인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랑을 테마로 한 축제이다.

프랑스 남부의 그림 같은 색채 건물이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이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마치 동화 속 공주와 왕자가 된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일몰 전 도착했다면? 여유로운 마음으로 불빛을 기다리면서 마을을 거닐어 보자. 6,000여 평의 대지에 펼쳐진 아이비와 프랑스 예술마을을 연상시키는 파스텔풍 건물, 예술가의 영혼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골목, 키 큰 나무와 분수가 어우러진 크고 작은 마당, 넓은 농원 위로 가득 펼쳐진 라벤더 정원이 어우러진 마을 구석구석은 마치 프랑스와 한국의 거리를 좁혀주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프로방스 마을 곳곳에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상품을 파는 편집숍과 세계 각국의 가정식으로 구성된 레스토랑, 고흐와 피카소의 향기가 담긴 카페 골목길, 예술과 문화를 품은 조형물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불빛축제와 상관없이 행복한 시간을 즐기게 할 것이다.

#파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조명박물관

반짝반짝! 전시와 체험 그리고 공연까지 한 번에 크리스마스 특별전

양주시에 위치한 조명박물관은 빛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조명 '전문' 박물관이다. 국내외 조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명역사관, 다양한 조명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시 외에도 조명을 직접 만들어보는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며, 예술가들과 함께 빛의 여러 가지 모습을 라이트아트 작품으로 전시하면서 조명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크리스마스 특별전'은 2006년부터 매해 겨울 개최되는 정기 행사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와 빛을 주제로 전시, 체험은 물론 즐거운 크리스마스 공연과 이벤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 전시이다.

특히, 올해는 북두칠성을 주제로 하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통해 빛이 주는 무한한 감동과 따스함을 되돌아보는 한편,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관련 동화를 연출한 전시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 그 시절, 다양한 조명을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며 올해보다 더욱 밝게 빛날 새해 소망을 그리고 싶다면 조명박물관을 꼭 한 번 둘러보길 추천한다.



©경기도블로그

#양주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아침고요수목원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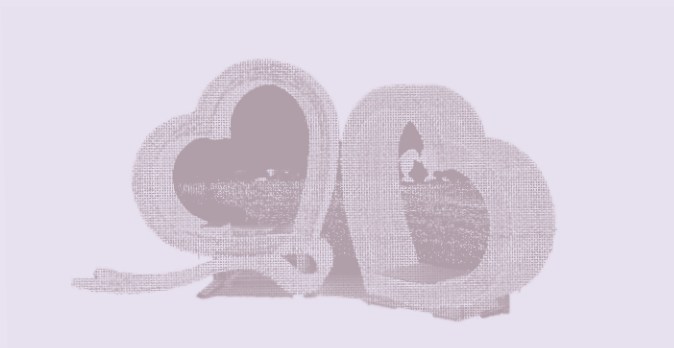
추운 겨울밤을 녹이는 따스한 빛 오색별빛정원전

약 5,000여 종의 식물과 22여 개의 특색 있는 주제 정원으로 이루어진 아침고요수목원은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등에 선정되는 등 세계 속의 한국을 알리는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이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 아침고요수목원은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바로 1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오색별빛정원전'으로 10만여 평의 정원에 아름다운 빛이 더해져 연인 단위의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7년, 직원들의 자발적 기획으로 시작된 오색별빛정원전은 친환경 LED 빛을 이용해 아침고요수목원만이 가진 고유한 정원의 형태를 별빛으로 형상화했다. 다양한 테마를 표현한 빛으로 겨울밤을 물들이는 인공적인 조명 속에서도 한국 자연의 미(美)를 한껏 느낄 수 있어 아름다움과 건강한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다. 또한 다양한 조명 덕분에 장소마다 다른 콘셉트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곳곳에 위치한 특별한 포토 스팟을 찾는 것도 축제의 또 다른 재미다.

다채로운 조명과 빛을 이용하여 특별한 주제를 표현한 야간 조명을 바라보면서 연말을 더욱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뷰, 하나

<CONCERT MEDITATION 반향 2022 : 묵(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음악명상콘서트

프리뷰, 둘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 파보 예르비>
세계 최고 챔버오케스트라, 4년 만에 한국 찾는다

프리뷰, 셋

<토크콘서트 : 12월의 랑데북>
감성 가득한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대

리뷰, 하나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낳은 비극

리뷰, 둘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
꾸준한 실험과 확장... 가장 진화한 '오늘의 음악'

North

South

On Stage

*무대를 채우는 공연, 공연의 감동을 전하는 시선

Concert Meditation
반향 2022 : 묵(默)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의 네 번째 음악명상공서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이하 경기시나위)는 2022년 마지막 레퍼토리 시즌 공연으로 <반향 2022 : 묵(默)>을 선보인다. 2019년 처음 선보인 이후 연말 콘서트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올해로 네 번째 시리즈를 맞이했다. 반향은 ‘음악명상공서트(Concert Meditation)’이라는 큰 틀 안에 매회 새로운 주제로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명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반향(Reflection)
<반향>은 흔히 송년음악회로 떠올랐던 화려한 콘서트 이 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반추하는 명상음악회 콘셉트를 도입하여 2019년 <반향>, 2020년 <반향 : Elevation>, 2021년 <반향 : Voice>까지 차별화된 음악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음악을 감상할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좌식연주로 무대를 바꾸면서 듣는 음악회에서 보는 음악회로, 더 나아가 명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배치하기도 했다.

2022년 <반향>은 창작음악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작곡가 이견용의 음악으로만 구성했다. 그는 기악곡과 성악곡 분야, 양악과 국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연출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창작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ARKO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침묵의 수행을 음악으로 구현하고자 그동안 작곡하면서 늘 적용해오던 음악의 논리와 정해진 형식, 문법을 다 버리고 마치 유목민이 배낭 하나 둘러메고 초원이나 황무지처럼 아무 표지판이나 길도 없는 곳을 가는 느낌으로 작업에 임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음악공연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반향(Reflection)이 청중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음악적 스토리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힘을 가진 그의 작품이 그간 국악관현악이라는 음악적 본질에 목말라 있던 관객들에게 해갈(解渴)이 되는 작품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는 올림과 감동
이번에 선보일 작품 가운데 명상음악의 깊이를 더할 신작 ‘천동의 말’과 국악관현악곡 ‘묵(默)’ 등이 눈길을 끈다. ‘천동의 말’은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에서 영감을 얻은 곡으로, 경기시나위 성악양상블 소리봄(6인)과 타악기의 양상블로 선보이는 무대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묵(默)’은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구성된 대작이다. 이견용은 <반향>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할 방법으로 ‘침묵’을 생각해냈지만, 침묵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점을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묵(默)은 단순한 침묵을 넘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과정을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곡됐다. 경기시나위 예술감독 원일의 지휘와 74인조의 연주로 약 20여 분간 이어질 깊이 있는 사운드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

또한, 장소에 따른 음악적 매력을 전하기 위해 경기아트센터뿐만 아니라 화성시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에서도 진행된다. 국내 최초의 성모 마리아 순례지이자 영혼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설계로 유명한 남양성모성지 대성당은 2021년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이기도 하다.

공연 관계자는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공간, 별도의 음향장비 없이 올림이 아름다운 공연장으로 남양성모성지와 오랜 시간 협의했으며, 명상과 성찰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과 어우러진 새로운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 및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남양성모성지 공연은 사전 예매자만 관람이 가능하다.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반향 2022 : 묵(默)>

일시 12.2.(금), 20:00-12.3.(토),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남양성모성지 대성당
연락처 031-289-6473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 파보 예르비>

세계 최고 챔버오케스트라, 4년 만에 한국 찾는다

12월 13일, 세계 최정상 챔버 오케스트라와 지휘자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파보 예르비의 지휘 아래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의 연주가 펼쳐질 본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해외 우수작품 시리즈'의 두 번째 공연이다. 특히, 지휘자 파보 예르비는 지난 9월 '에스토니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경기아트센터를 찾아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소중한 이들과
함께 듣는
연말 선물

음악 양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하이든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교향곡 96번'과 베토벤의 다른 교향곡과는 달리 여유와 익살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교향곡 8번', 비슷한 듯 다른 두 작품을 과연 어떻게 독창적으로 표현할지는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협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무대에 오른다. 클라라 주미 강은 아시아 및 유럽에 걸쳐 저명한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와 함께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무대에서의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연주로 국내외 클래식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도이치 캄머필과의 협연 무대에서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경기아트센터는 '해외 우수 작품 시리즈'를 통해 관객들에게 해외의 우수한 악단 및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공연 관계자는 "세계적인 지휘자와 챔버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연주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시간을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가 넘어가는 겨울,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 따스함을 전해준다. 이번 연말에는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공연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

해외우수작품시리즈 II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
파보 예르비>



일시 12.13.(화),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연락처 031-230-3440

오랜 시간
다져온
특별한 케미스트리

파보 예르비(Paavo Järvi)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휘자'로 손꼽히는 에스토니아 출신의 지휘자다. 현재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예술감독과 일본 NHK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예르비는 이번 공연에서 세계 최고 챔버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이하 도이치 캄머필)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도이치 캄머필은 독일 브레멘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챔버 오케스트라로, 2004년부터 지휘자 파보 예르비가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휘자 그리고 악단으로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이번 무대에서도 특별한 케미스트리와 함께 빈틈없는 연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공연에서 도이치 캄머필은 하이든의 '교향곡 96번'과 베토벤의 '교향곡 8번'을 연주한다. 정통 독일 사운드의 강점을 가진 도이치 캄머필의 차별화된 실내악적 접근방식과 모든 무대에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마에스트로 파보 예르비의 리더십과 지휘는 고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Deutsche
Kammerphilharmonie
Bremen
Paavo Järvi



<토크 콘서트 : 12월의 랑데북>

감성 가득한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대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12월 15일, <토크 콘서트 : 12월의 랑데북>을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토크 콘서트 : 랑데북> 시리즈는 '책, 영화,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을 콘셉트로 하는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8월에 이은 이번 <랑데북> 시리즈에서도 그간 꾸준히 진행을 맡아온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무대에 오른다.

TALK
CONCERT

RANDEZBOOK

변화하는 시대의 색다른 소통

책과 영화, 음악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 랑데북>이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난다. <12월의 랑데북>에서는 이동진 평론가를 비롯하여 황인찬 작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가 출연한다. 연말의 감성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12월, 이번 랑데북 무대에서는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출연진 및 관객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 레퍼토리 시즌 GGAC 기획공연으로 진행되는 <랑데북>은 지루했던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공연계처럼 올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무대와 객석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다양한 의견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도입한 '실시간 채팅'이다. 지난 <8월의 랑데북>을 통해 처음 선보인 오픈채팅은 공연 중 무대 위 출연진과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채팅창에 올라온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출연진의 답변을 즉석에서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의 새로운 장을 열며 큰 호응을 받았다.

기존에 출연자들이 추천하는 도서/영화 이야기를 나누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한 걸음 나아가 대중이 접속한 채팅방을 통해 관객들은 출연진들과 거리를 넘어선 소통을 진행하는 것. 어찌 보면 메타버스 시대에 근접해가는 공연장의 변화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늘 그렇듯 1년의 마지막
을 맞이하는 이즈음에
는 마음이 상충생송해

지곤 한다. 무엇 하나에 집중하기 어렵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기 쉬운 12월 <랑데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소극장을 찾은 관객들과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아온 각자의 안부를 나누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랑데북>에서 만나는 음악은 인디와 대중의 경계에서 유니크함을 선사한다. 세대를 넘어 노래를 통해 삶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온 밴드 브로콜리너마저는 라이브 무대와 함께 토크에도 참여하여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각자의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현재 한국 시단의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시인, 황인찬이 함께하여 읽고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경기아트센터의 스테디셀러 공연인 랑데북에 보내준 큰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3년에도 한층 강화된 콘텐츠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랑데북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연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와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소통이 화두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1년이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씩을 남겨두기 마련이다. 연말 <랑데북>과 함께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 속에서 뜻깊은 한 해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



<토크 콘서트 :
12월의 랑데북>



일시 12.15(목), 20:00
장소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440

출연진 소개



브로콜리너마저

많은 이들에게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로 널리 알려진 밴드. 2008년 데뷔 이후 1집 '보편적인 노래', 2집 '졸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는 '청춘을 넘어서 '삶'을 이야기하는 밴드로서, 진솔한 메시지를 담은 울림이 있는 가사와 담백한 사운드로 대체 불가능한 감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황인찬

2010년대를 대표하는 젊은 시인 중 한 명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후, 시집 『구관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퇴물』,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등을 썼다. 김수영 문학상(2012)과 제66회 현대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했으며, 문학을 잘 대화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시를 이용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주 고민한다.



경기도극단 연극 <맥베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낳은 비극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그의 부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레이디 맥베스'로 연극계의 찬사를 받았던 한태숙 경기도극단 예술감독. 그런 그가 다시 고전 맥베스의 무대를 준비한다 고 했을 때 가졌던 궁금증과 물음표는 작품을 마주하는 동시에 강렬하게 터져 나온 느낌표로 바뀌었다.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악의 늪

권력에 대한 야망, 인간의 욕망, 그로 인해 비극으로 빠져 들어가는 인물의 내적 갈등과 고독. 어쩌면 오늘날 인간의 군상이 투영됐을지 모를 맥베스의 무대는 그들만의 날카롭고 깊은 호흡으로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한 감독의 맥베스는 전쟁이라는 대명제 아래 '부패한 군대문화'를 심었다. 총을 들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 이따금 들리는 헬리콥터 소리는 동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부분이다. 어두운 무대 위에 쓰러져 있는 군인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하얀 거품을 물고 있는 중독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팔과 다리, 얼굴을 제각각 보여주며 마치 조각나있는 듯한 모습을 한 세 마녀, 각성한 듯 깨어나 유연하고 기괴한 움직임을 보인 붉은색의 형체는 그 전쟁터에서 또 다른 제물을 찾았다. 전쟁의 과정에서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들이자 타락한 이들의 이야기임이 첫 장면에서 임팩트 있게 전해졌다.

작품에서 군인들은 법으로 금지된 악에 취해 비틀거렸고, 정의

와 평화가 아닌 욕망을 위해 총을 들었다. 마녀들은 이런 사람들을 악초의 환각으로 유혹하고, 그들 내면에 숨어있던 원초적인 욕망에 불을 붙인다. "왕이 될 자"라는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자꾸만 흘러나오는 욕심에 머뭇거리고 주저하지만, 마녀들과 다르지 않은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의 달콤하고도 강한 속삭임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악의 늪으로 발을 내디딘다. 비극은 그렇게 슬그머니 피어났다.

맥베스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내는 과정과 그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심리에는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내면의 갈등 또는 죄의식이 있다. 한 인간이 탐욕에 굴복해가는 과정을 직관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장면들은 한 감독의 관점과 개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포인트이다. 예언을 듣기 위해 찾은 마녀들의 소굴에서 악초를 끊임없이 입안으로 욕여넣고 결국 토해내는 장면이라든지, 맥베스의 내면이 입에 머금고 있던 피를 그의 얼굴에 뱉어내는 장면 등도 맥베스가 겪는 심리가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파멸을 재촉하는 덧없는 불빛

화려한 붉은색 용단이 깔린 높은 계단과 대조되는 검은 관도 인상적이었다. 관은 무대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는데, 죽음은 물론 맥베스 부부가 위태롭게 누워있는 침대이자 군인들이 싸움을 벌이는 어두운 숲속 나무가 되기도 한다. 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바탕으로 두고 여러 형태와 의미로 표출해낸 점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이번 작품에서 '맥베스' 역할을 맡은 배우 전박찬은 기존에 보여진 '덩치 크고 무술에 능한 장군 맥베스'의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숨 막힐 듯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또 그와 호흡을 맞춘 '레이디 맥베스'의 배우 성어진 역시 내공 있는 연기력으로 작품이 끝나는 순간까지 팽팽한 긴장감으로 극을 이끌었다. 맥베스 내면을 연기한 배우 김하람은 대사 한마디 없이도 대단한 존재감을 나타냈으며, 이들은 윤재웅, 한범희, 박현숙 등 함께 출연한 경기도극단 단원들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결국, 이 작품은 한 감독의 말처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넘어선 염원이 도가 지나치면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확장성을 띄며 강조된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전과 다르게 조금씩 변형시킨 것도 이러한 주제에 힘을 실는데, 단지 맥베스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하나의 사회에 위치한 지도자의 부패한 사고와 장악력, 점차 추락하는 힘들이 불행을 가져오는 모습을 시대를 넘나드는 대사와 함께 잘 그려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이 모든 것이 '덧없음'을, 그토록 발버둥 치다 단 한 발의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한 맥베스를 보며 떠올릴 수 있었다.

"꺼져라, 꺼져라... 덧없는 불빛이여. 인생이란 한낱 배회하는 그림자. 무대 위에 등장할 동안 뽐내고 안달하지만, 지나고 나면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하찮은 배우. 삶이란 백치가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마구 떠들어대는 것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 ◀

글 — 구민주

경인일보 문화담당 기자. 이 세상 모든 덕후를 존경한다. 좋아하기만 하고 잘은 몰랐던 문화의 구성구석을 탐구해 가는 중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

꾸준한
실험과 확장...
가장 진화한
‘오늘의 음악’



새로운 국악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계로 떨어진 두려움은 ‘충돌과 조합’(부유하는 생명들)으로 구현됐다. 모든 소리가 한 번에 쏟아졌다. 전자음과 국악기가 빚어낸 소리의 충돌은 소리의 재조합으로 나아간다. ‘후크송’처럼 반복되는 멜로디 위로

가야금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일렉트릭 기타가 묵직한 소리를 얹으며 섬세하게 균형(별빛 아래)을 찾는다.

낮선 세계로의 여정을 마친 존재는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세계로 당도한다.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를 위해 창작한 이 일우의 무대(FOOTPRINTS ON THE MILKWAY)였다. 공연에선 잠비나이 멤버이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수석악장으로 체득해온 이일우의 음악적 경험이 빛을 발했다. 악기의 특성과 연주자의 강점을 간파한 소리의 조화, 장르를 넘나든 음악가의 대중적 감각이 돋보였다. 국악기와 전자음향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은 이 무대에서 나왔다.

‘현재의 음악’에 전자음이 섞이지 않은 것은 없다. K팝, 발라드, 밴드음악 등 모든 장르를 초월해 ‘음악의 기본’은 전자음향이 된 시대다. ‘새로운 국악’에 대한 고민과 가능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나위 일렉트로니카>의 주인공은 투톱 체제다. 국악에 전자음악을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가져왔다. 올해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 공연은 2019년 11월 원일 예술감독 취임 이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꾸준히 이어온 소리의 실험과 확장의 과정 위에 있다.

지난해 <시나위 일렉트로니카>가 전자 음악가와 함께 한 무대였다면, 이번엔 전통음악 기반으로 전자음악을 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무대를 꾸몄다. 비트 메이커인 라이언 클래드는 예외다. 무대는 종묘제례악을 ‘요즘 음악’으로 들려주는 얼트-일렉트로닉 듀오 해파리(HAEPARY)로 시작해 이일우, 라이언클래드, 임용주로 이어졌다.



‘무대 위로 우주가 쏟아졌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가는 개척자의 걸음걸음은 하나의 내려티브를 가지고 이어졌다. 글로 치면 서론(NOVO 2308)-본론(부유하는 생명들)-결론(별빛 아래)의 형식. 8개의 세로 조명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빛은 음악의 시작(NOVO 2308)을 알리는 전자신호처럼 보였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색다른 창작

해파리와 임용주는 완성도 높은 ‘이종 간의 결합’을 보여줬다. 해파리는 ‘탈전통’을 대표하면서 원형의

유지를 고민하는 듀오다. 이들은 공적을 기리는 ‘상징의 집합체’인 종묘제례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공연에선 지난해 발매한 첫 EP ‘본 바이 고저스니스(BORN BY GORGEOUSNESS)’를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선보였다. 전자음악을 가져오면서도, 그것을 과하지 않게 활용한다는 정체성이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도 잘 어우러졌다. 세 번째 곡인 ‘소무-독경’에선 세종이 지은 정대업을 주술처럼 외고, 일무를 그들만의 퍼포먼스로 바꿔 선보였다. 거친 전자음을 내는 거문고 소리가 귀에 꽂히는 ‘귀안-형가’에선 종묘제례악의 고수와 전복이 일어났다. 눈을 감고 들으면, 이 순간 공연장은 베를린의 클럽이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임용주의 ‘울릴 굉轟(Expansion)’은 편경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악기를 아우르는 대편성의 곡으로 무대에 올랐다. 전통 음률의 표준을 상징하는 편경으로 시작해 전통 국악관현악의 요소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무대는 완성도가 높았다.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음악을 해온 임용주의 시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야금과 거문고의 합주와 전자음의 어우러짐은 기이하고 낯선 폭풍 전야로 관객을 이끌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음악세계

여러 의미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라이언 클래드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타악 앙상블 궁궁의 무대에서 나왔다. 전형적인 사물놀이 장단과 비트 메이킹은 조화와 부조화를 반복했다. 때때로 비트메이커와 타악 앙상블은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한 것처럼 들렸다. 네 번째 곡에 접어들어서야 사물놀이와 화려한 비트가 어우러져 양쪽의 흥이 살아났다.

이날의 무대는 종묘제례악, 정악, 판굿과 같은 기존의 전통을 전자음향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융합은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향한 씨앗을 뿌린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실험과 확장은 “전자음악이 비정형 튜닝 악기들과의 조화와 5음 음계의 소리적 지평을 확장시킨다”(원일 예술감독)는 확신을 가지고 이어오고 있다. 이 악단은 기존의 국악관현악단과도 다른 지점에 있고, 지향하는 음악 역시 ‘국악 크로스오버’로 가둘 수만은 없다. 가장 진화한 ‘오늘의 음악’이자, ‘최신의 음악’을 들려주는 악단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파격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음악세계로 관객을 이끈다. 이번 공연에선 조금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음악의 실험’을 보여줬다. 다만 지금의 공연이 완성형은 아니다. 기악 연주는 전자음의 빠른 비트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었고, 소극적인 전자음향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반주처럼 들릴 때도 있었다. 반복적인 전자음악과 장단의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가장 큰 숙제는 낯선 두 장르가 결합한 음악을 통해 대중성을 찾는 일이다. 생경한 두 장르의 만남은 관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앞서가는 시도로만 그칠 수 있다. 실험의 의미를 넘어 ‘파격적 음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때다.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실험과 확장은
“전자음악이 비정형
튜닝 악기들과의 조화와
5음 음계의 소리적 지평을
확장시킨다”



글 — 고승희

헤럴드경제 문화부 기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쓴다.

예술이 만난 인문학
만화도 미학을 알고 보면 심오하고 재미지다

트윙작
아트테이너(ARTAINER), 생태계 교란일까, 확장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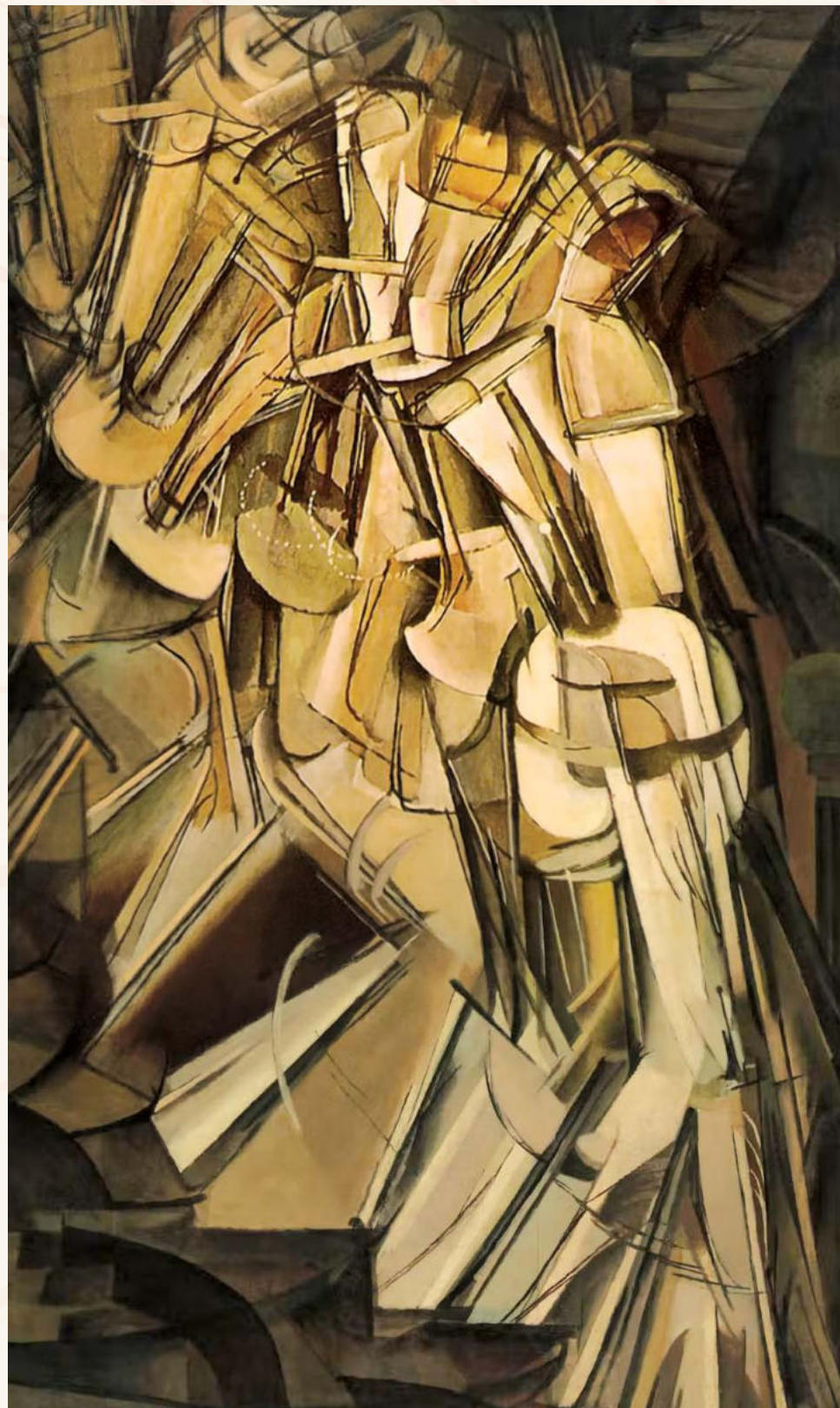
컬처로드
새로운 대화를 일으키는 통로, 공공미술의 힘

예술 알고리즘
장애인의 접근성을 무대로 드러내는 기술

#공감태그
#독자참여#SNS공연리뷰

ONF Talk

*강렬하고 친근한 ON&OFF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이야기



<그림 1> 뒤상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No.2>
 <그림 2> 플라톤의 거울

만화도 미학을 알고 보면 심오하고 재미지다

고대 그리스 미학자 플라톤은 예술 특히 회화를 이데아 진리를 모방한 자연을 다시 모방한 것으로 하찮게 평가했다. 그는 예술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진리와 두 번이 떨어졌으며, 사물을 반영 모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다. 그럼에도 이 거울은 완전히 진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열은 거울 즉 불쌍한 복사라고 말했다. 플라톤은 이 ‘불쌍한 복사’를 ‘시뮬라크르(Simulacrum)’라고 불렀다.

시뮬라크르 예술로서 만화

중세와 근대 시대에 잊혀진 플라톤의 시뮬라크르 개념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에서 새롭게 부각된다.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한 보드리야르는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시스템의 매스미디어 사회에서, 시뮬라크르를 원본이 상실된 상품 모든 실재의 인위적 대체물로 규정했다.

과거 소수를 위한 예술은 이제 다수를 위한, 다수의 예술이 되면서,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으며, 결국 복사본이 원본을 대체하는 사회가 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 이 시뮬라크르는 바로 자본주의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모든 예술에 적용된다.

문학, 영화, 음악 등을 비롯하여 만화 또한 신문과 잡지라는 인쇄 매체 산업 속에서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만화를 읽고 보는 우리는 만화의 원본에 대한 의미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만화 속 이야기와 캐릭터의 허상을 소비하고 이 이미지를 신화처럼, 종교처럼, 문학처럼, 회화처럼, 그리고 나의 이야기처럼 의사-종교화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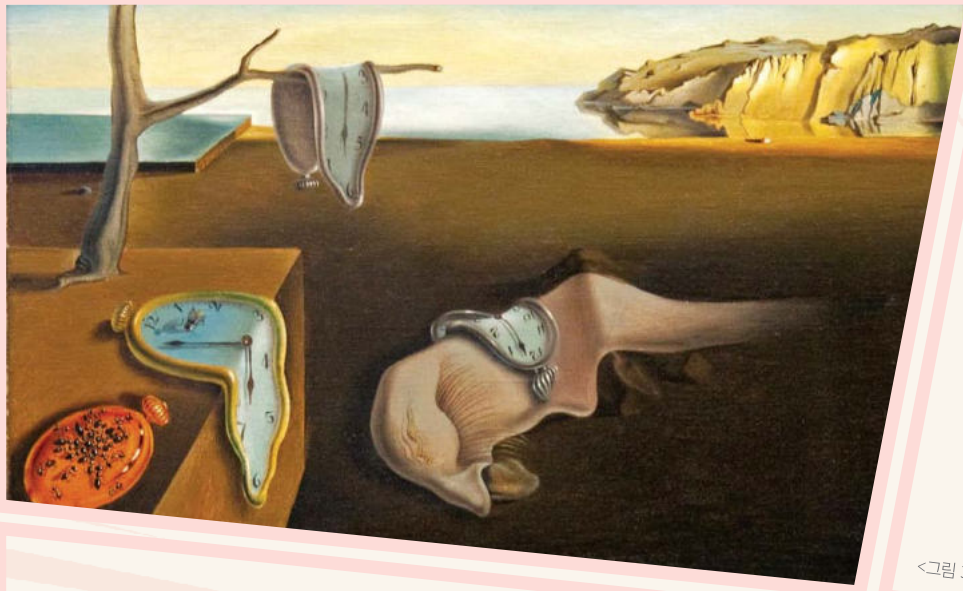
결국, 만화 속 세상은 실제 같은 혹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게 느껴지는 가상현실이 된다. 마치 우주여행과 전쟁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TV를 통해서 시청하는 관람자처럼 말이다. 만화 독자는 영웅, 전쟁, 역사, 일상, 로맨스, 범죄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보면서 감정이입과 동화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회화를 복제된 가상현실이라고 느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복제된 가상현실을 만드는 주체자로 만화가 회화를 대신하고 있다. 만화는 회화나 문학을 넘어서 새로운 가상 유니버스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 플라톤의 거울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는 만화의 칸

수많은 예술가들은 시간과 공간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미지로 재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공간은 순간 포착이 가능했지만, 시간의 흐름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1904~1989)가 <기억의 지속>(1931)에서 시간과 기억의 상대성과 탈주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표현해냈지만,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재현한 작품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뒤상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No.2>는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포착해낸 관찰과 상상력의 걸작이다.



<그림 3> 달리의 <기억의 지속>

한 프레임 안에 시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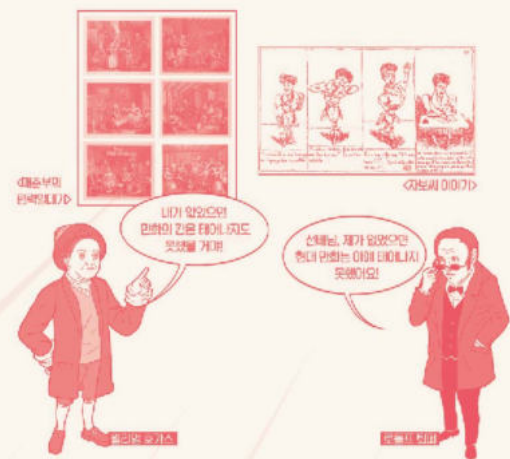
공간을 포착하는 회화와 달리, 만화는 시간과 공간을 맘대로 조정하고 재현

하고 연출하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 바로 칸이다. 만화는 '스토리를 가지고 의도된 순서로 나란히 놓인 그림과 글의 조합 예술'

이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나란히 놓여 있는 그림을 형성하는 단위가 바로 '칸'이다. 만화는 칸으로 시작해서 칸으로 끝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칸은 만화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18세기 풍속화가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와 1830년대 로돌프 뢰퍼(Rodolphe Töpffer, 1799~1846)가 없었다면, 만화에서 칸의 탄생은 훨씬 더뒀을지도 모른다.

만화는 회화의 원근법을 통해서 공간적 연출 미학을 재현했다면, 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규정하고 대립시키는 철학적 변증법을 배웠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평생을 두고 연구하고 해석했던 시간과 공간을 만화는 칸이라는 네모 상자 하나로 해결해버렸다. 만화는 칸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그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와 저기, 거기를 다 그려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칸은 시간은 물론, 공간마저 캐릭터, 처한 상황, 닥친 시간에 맞게 규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

칸 속에 또 다른 칸을 만들 수 있으며, 칸의 모양, 크기와 배열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며 다양한 상대적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다. 칸이 하나일 경우에는 사진이나 회화처럼 정지화면이지만, 이 칸을 여러 개로 연결하면 지속적이고 통일성 있는 내러티브 구조를 띠며 영화 같은 영상예술이 된다. 칸 속의 연출은 카메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하며 전달하는 칸은 장면 구도와 연출을 결정하는 영화적 미장센(Mise en scène) 미학을 창조해낸다. 만화 독자는 영화 관객처럼 연속된 칸에서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그림 4> 윌리엄 호가스와 로돌프 뢰퍼



<그림 5> 이모티콘의 한 형태

아이콘 이미지 예술로서 만화

미국 기호학자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에 따르면, 기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지표(Index), 상징(Symbol), 그리고 도상(icon)이다. 지표는 대상이 갖는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나 원인에 바탕을 둔 기호다. 상처의 흔적, 화재의 연기, 번개와 천둥 등이 지표의 기호다. 상징은 해독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기호다. 십자가, 국기, 언어 등이 상징이다. 마지막으로 도상, 즉 아이콘은 지시 대상과 가장 유사하면서 시청각적으로 단순화하고 명료한 기호다. 화장실 그림, 사람 모양, 구름 모양 등 무수히 많다. 아이콘은 흔히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톡의 이모티콘이 대표적이다. 사실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이 합쳐진 말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말'로 설명된다.

중세 시대의 성화와 성상에서 유래된 아이콘은 만화에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복잡한 사물을 추상적이고 단순화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이 되었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대상을 단순화시켜 보면 원과 사각형, 그리고 삼각형만으로 모두 재현이 가능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과 선만으로 그려진 졸라맨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자 하는 데서 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졸라맨처럼 사람을 그린다. 미학에서는 이를 시지각적 형상이라고 한다. '보는 대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다. 현대 미술에서 입체주의 화가 피카소가 작품 <황소>(1945)에서 황소가 추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처음에는 복잡하고 사실적인 황소가 마지막에 단순한 윤곽선으로만 남는 형태로 재현됐다. 그것도 황소로 보인다.



<그림 6> 피카소의 <황소>

만화 아이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구체적이고 복잡한 실제 사물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에는 하나의 기호처럼 보인다. 이를 '약화(略畵)'라고도 한다. 그럼 만화는 이런 약화 작업은 왜 하는 걸까? 스콧 맥클라우드(Scott McCloud, 1960~)는 《만화의 이해》에서, "구체적 대상의 단순화 작업을 통해서 전달 효과의 확장과 의미 전달의 보편성을 지향한다"라고 설명했다. 미술사적 이론에 대입하면, 입체주의자들이 추구했던 '형태적 의미에서 사물의 본질'에 근접하는 행위인 셈이다. 그 본질이 바로 점, 선, 원, 사각형, 삼각형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만 있으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으며, 그렇게 단순하게 재현된 아이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호가 된다. ◀

글 — 박세현

철학과에서 미학과 미술사, 만화예술사, 대중문화를 전공했으며 상명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에서 미학과 예술사, 만화비평을 가르쳤다. 현재 만화평론가로서 다양한 저술과 더불어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아트테이너(Artainer), 생태계 교란일까, 확장일까?

예술계는 대외적으로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이 예술이라며 많은 것을 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유명 연예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 종종 언짢은 내색을 비추는 것을 보면 정작 예술계 테두리 안에는 보수적인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와 불편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기보다, 앞으로 더 확장해나가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활동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는 아트테이너(Art+Entertainer)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글 — 양지현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예술 행정에 관해 연구하며, 딜링아트(dealing-art.com)의 <매거진9>에 글을 집필한다. 창작과 기획,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자 한다.

‘작품성’에 인기와 명성이 영향을 미칠 때

‘인기’와 ‘명성’이 주는 자본적 이익은 방대하고, 그 가치는 쉽게 과장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어느 분야의 어떤 사업을 하든 진입부터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과 ‘예술인’이라는 직업은 분명 달랐다. 창작의 여부와 표현의 방법에 있어 구분되지만,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감정을 담아내고 의미를 표현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예술인에 포함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수예술계 진입 시작부터 아트테이너의 작품가격이 약 10~20년간 예술계 안에서 명망을 쌓아온 작가와 같거나 심지어 더 많게 책정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작품가격은 통상적으로 작품성, 작가의 경력, 작품의 크기로 결정되는데, 경력이나 크기와 같이 가시적 기록 외에 ‘작품성’이란 모호한 기준이긴 하다. 특히 이 시대는 미디어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공모전 당선이나 전시회를 여는 등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예술계에서는 누가 그랬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기에 먹고, 입고, 가는 곳까지 SNS에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브랜드화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는 초반부터 예술가로서 경력을 쌓기 쉬운 위치에 있는 환경이다. 인지도와 명성을 이용해, 그들을 큰 아트페어와 해외 갤러리에 작가로 세운다는 것은 기획자와 행사 관계자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마케팅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의 작품이 몇 시간 만에 완판되고, 해외 어느 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얼마에 팔렸다’ 등등, 예술계 안에서 활발할 활동을 보이는 작가보다, ‘어느 드라마에 출연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효과적이다.

<스타트아트페어에 소개된 송민호, 헨리>
출처: Start Art



David Magee



Ohnim



Phillip Humm



Henry Lau

변화하는 환경 속 생태계 확장의 선순환

반면, 꾸준히 작품활동에만 전념하던 작가에게는 정작 SNS에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딜레마를 주게 된다. 또한, 언론은 고액에 판매되었다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일반 대중들은 가격이 작품성을 담보하는 듯 비춘다.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는 예술계 ‘안’ 종사자에게는 예술계의 이중적 태도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다. 아트테이너를 바라보는 예술계의 비판이 담긴 시선을 표현하는데(거칠고 자극적이지만) ‘생태계 교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과연, ‘아트테이너’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봐야 할까?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 기존에 번식하고 있던 종자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새로 유입되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아트테이너를 생태계 교란이 아닌 생태계 확장의 선순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술계의 입지를 잡고 있던 작가와 예술계 종사자들이 얼마나 견고히 입지를 다지고 있었는지 그 역할이 중요하며, 예술의 소질이 있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역차별하는 보수적인 시선을 가진 건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할 때다. 이런 변화에 불편함만 품기보다, 예술이 가진 자유와 포용성을 믿고 더욱 빛을 발휘할 기회로 만들어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송민호(ohnim)의 작품 hiding 2
출처: Start Art

균형과 다양성을 가져야 하는 예술계

분명, ‘아트테이너’는 예술 산업을 확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예술인의 노동 인정과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인과 아닌 사람을 명확히 나눌 필요도 있지만 먼저, 예술계 안의 편 가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신뢰도가 없는 미술시장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예술성이 전시 횟수, 작품 수, 경력 등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님은 알고 있다. 아트테이너이기 때문에 받는 관심과 거품 사이, 연예인으로 쌓아온 인기와 명성이 적용되어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기에, 그 작품성에 대한 *크리틱(Critic)을 받는 환경도 존재해야 한다. 한국 예술계가 비평과 크리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진정한 작가로서 관찰되고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작가들에게는 일상인 크리틱의 환경이 아트테이너에게도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예술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본다면, 작품가격이 의미하는 것과 작품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한지 어렵풋하게 느껴진다. 돈과 예술이 만나는 것을 꺼려왔던 보수적인 예술계에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형태의 예술시장이 도래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간과해왔던 가치의 불협화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술성과 가격, 미술시장 등 다양한 매체나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새로운 예술인이 생겨난다. 이러한 현상과 사회를 살펴보기 위한 노력은 양 간에 필요하다. 예술 생태계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균형과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인 것이다. ◀

* 크리틱 : 공적인 입장에서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것



<하정우, 디지털 작품 a to A 중 일부>
출처: 클립드롭스(Kipp Drops)

새로운 대화를 일으키는 통로, 공공미술의 힘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1시간 반, 승용차를 사막용 SUV로 갈아타며 북부 사막에 내렸다. 햇빛이 모자를 뚫고 머리에 꽂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지평선 위로 뭔가 반짝였다. 아이슬란드계 노르웨이 작가 올라푸르 엘리아손의 설치미술 '그날의 바다 위를 여행하는 그림자들(Shadows Traveling the Sea of the Day)'이다. 첫 소감은 '경외'였다.



카타르 사막에 재현된 '현대판 스톤헨지'

지름 10.51m의 거대한 거울 원
반 19개가 세상을 뒤집어 비쳤

다. 사막으로부터 4.53m 높이 강철 링 위에 설치한 거울이다. 설치 면적은 축구장 두 배 정도, 완성에만 7년이 걸렸으며 엘리아손이 작품을 설명했다.

“거울을 올려다보면 땅을 딛고 선 자신이 제3자의 시선에서 보입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것 같죠. 링과 거울은 다시 한번 온전한 원으로 세상과 이어져요. 위태롭게 연결된 우리들처럼요.”

카타르의 사막엔 미국 설치 미술가 리처드 세라가 높이 14~16m의 거대한 강철 기둥 네 개를 약 1km 거리에 잇따라 세운 '동-서/서-동(East-West/West-East)'이 거대한 모래 고원 사이에 서 있다. 중세의 베네치아가 그랬듯, 동양과 서양을 잇겠다는 카타르의 문화적 야심을 상징하는 이 설치 미술품을 미국 잡지 하퍼스 바자는 '사막의 스톤헨지'라고 불렀다. 인근에는 유목민 캠핑 체험 시설이 있어, 사막 한가운 데인데도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FIFA 월드컵 기간 셔틀이 도하의 도심과 이 사막을 오간다. 엘리아손의 작품과 함께 자리 잡은 에르네스토 네토(브라질), 시몬느 파탈(미국)의 사막 설치미술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미술품 주변은 관광객으로 더욱 붐빌 것이다.

리처드 세라, 동-서/서-동(East-West/West-East), 2014,
녹슨 쇠, 높이 14.7~16.7m / 사진:이태훈



올라푸르 엘리아손, 그날의 바다 위를 여행하는 그림자들(Shadows Traveling the Sea of the Day), 2022,
쇠·유리거울 등, 4.53x10.51x10.51m / 사진: 이태훈

31m 바다소·10m 거울 원반… '전국이 미술관'

지금 카타르는 곳곳에 세계적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한
커다란 미술관이다. 카타르 박물관청 압둘라흐만 이샤

크 공공미술 국장은 '지난해까지 40점을 설치하고 올해 40점을 추가했으며 연말까지는 100점이 된다'고 전했다.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 내리면 높이 7m의 노란 곰 인형이 제일 먼저 손님을 맞는다. 스위스 출신 시각예술가 우르스 피셔의 조각 '무제 램프/곰(Untitled Lamp/Bear)', 루이 부르주아의 거대 청동거미 '마망', 데미안 허스트와 키스 해링 등의 작품을 지나 도하 도심으로 들어가면 10월 중순 설치된 높이 31m의 황금빛 '듀공'이 하늘을 헤엄치는 듯한 모양으로 인사한다. 논쟁적이고 값비싼 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이다. 세계 두 번째로 듀공이 많은 나라인 카타르는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 대한 경각심을 미술품으로 일깨운다. 이런 사회적 메시지 역시 공공미술의 역할이다.

실은 천연가스 부국이 벌이는 '돈 잔치'일 뿐이라고들 수근거렸다. 세잔과 고갱의 걸작부터 앤디 워홀과 제프 쿤스의 현대미술까지, 근 10여 년간 가장 비싼 미술품 경매에는 카타르의 공주 셰이카 알 마야사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했다. 미술품 구매액이 연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세계 미술계의 큰 손이다. 이름난 건축가들의 장엄한 건물이 수도 도하의 거리를 빼곡히 채운 것도 같은 시기다.

사회·환경 경각심 일깨우는
공공미술

정말 아랍 왕족의 값비싼 취미
활동일 뿐일까. 지난달 도하 이

슬람예술박물관, 이슬람 문물에 관한 한 영국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컬렉션을 갖춰 ‘사막의 스미소니언’(by 이코노미스트)으로 불리는 곳에서 처음 그녀의 육성을 들었다.

“미술품과 박물관의 경험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통로입니다. 그 바탕에 있는 카타르의 전통 *베두인(Bedouin)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거예요.”

월드컵과 문화예술은 카타르가 미래를 위해 갈고 닦는 야심찬 ‘소프트 파워’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카타르는 1인당 GDP가 한때 세계 1위를 찍을 만큼 부유한 나라. 하지만 인구는 300만 명이 안 되고 면적은 한국의 10분의 1 정도다. 게다가 바로 옆엔 사우디아라비아, 바다 건너 이란 같은 큰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2008년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 다변화 플랜 ‘비전 2030’을 내놓았다. 문화예술과 창의산업, 교육 투자가 골자.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거대한 문화유산 없이도 스스로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미술품 수집과 박물관 건설이라는 지름길을 택했다. ‘석유 이후’를 대비한 문화예술 투자 드라이브다.

*베두인 : 아라비아 반도 및 중동 지역에서 씨족 사회를 형성하며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우르스 피셔, 무제 램프/곰(Untitled Lamp/Bear), 2005-2006, 청동 등, 7×6.5×7.5m / 사진:이태훈



루이 부르주아, 마망(Maman), 2012, 대리석·청동·스테인레스 스틸, 9.1m / 사진: 이완 반

뉴욕·파리에 가듯
예술품 보러 도하를 찾게 될 것

공주는 과거 인터뷰
에서 '수십 년 뒤엔

지금 뉴욕이나 파리에 그림을 보러 가듯 도하에 오게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곤 했다. 미국 듀크·컬럼비아, 프랑스 소르본·시앙스포 등에서 공부하며 국제적 안목을 쌓은 그녀는 추진력 강하고 거침없다. 2013년부터 뉴욕타임스와 공동으로 ‘내일을 위한 예술’ 포럼을 지속적으로 열며 세계 예술계 최고의 두뇌들과 교류했다. 지금 카타르의 박물관에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 등에서 온 전문가와 학자들이 최고 대우를 받으며 콘텐츠를 채우고 있다. 박물관 건물 자체도 예술품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 누벨이 설계한 카타르 국립 박물관은 꽃잎을 여러 겹 겹쳐 놓은 듯한 외양의 ‘사막의 장미’로 널리 알려졌다. 10월 5일 재개관한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루브르 피라미드의 설계자 이오밍 페이의 작품이다. 옥빛 물 위에 뜬 보석 같은 걸모습 만큼 내부 컬렉션도 야심 차다. 자국 역사 위주인 카이로나 이스탄불과 달리 인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까지 포용한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카타르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of Qatar) / 카타르 국립 박물관 제공



건축가 이오밍 페이가 설계한 이슬람 예술 박물관(Museum of Islamic Art) / 사진: 이태훈

강대국 사이 작은 나라,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문화예술에 관한 유연함도 놀랍다. 2030년 개관
예정인 루사일 미술관 소장품을 미리 소개하는 프

리뷰 전시관엔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의 ‘아라비안 나이트의 네 가지 이야기’ 연작이 대표작으로 전시돼 있었다. 이슬람 예술 박물관은 아랍의 속적인 이란의 페르시아 문화 유물까지 태연히 상설 전시한다. 레바논 미술 전문지 ‘캔버스’의 아말 기자는 “카타르는 최고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최고의 건축가·전문가·예술가를 불러들여 자기 색깔의 문화를 구축해 가고 있다. 10년, 20년 시간이 쌓일수록 더 무섭게 성숙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와 권력의 중심이 변화하면 예술의 방향도 바뀌죠. 100년 뒤는 어떨까요. 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이카 알 마야사 공주는 말했다. 사막에 세워진 강철 모노리스는 현대의 스톤헨지가 될 수 있을까. 강단을 갖춘 지도자가 확고한 비전으로 인재를 키우고 예술을 후원하고 있다.

그 시간의 축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

글 — 이태훈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문화부 기자로서 주로 종교, 미술, 영화, 공연 등 분야에서 인터뷰하고 기사를 써왔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무대로 드러내는 기술

배리어프리 기술과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에 대한 담론이 확산됨에 따라 ‘배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공연예술 영역에서 배리어프리에 대한 고민은 주로 감각장애를 가진 관객을 위한 장치들로 구현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나 터치투어(Touch Tour),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등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배리어프리 장치들이 수어통역사나 화면해설 작가 등의 사람과 결합한 ‘기술’을 통해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공연을 읽고, 듣는 디스플레이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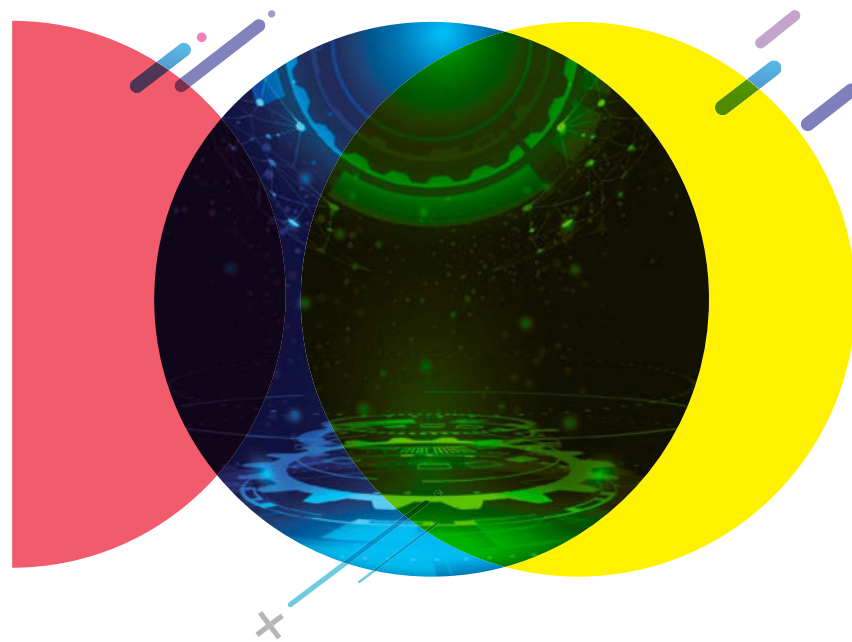
든 관객이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형 자막과, 청각장애인 관객이 좌석에서 개별적으로 문자통역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형 자막이 있다.

공개형 문자통역은 주로 무대 위에 LCD 스크린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레터박스 모양의 LCD는 한 줄에 알파벳 기준 40자를 표시할 수 있어 텍스트 한 줄에 충분한 정보나 대화를 표시할 수 있다. LCD 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무대 조명이 닿으면 텍스트를 읽을 수 없으므로 조명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LCD 스크린에서 종종 번쩍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작품의 미관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LED 스크린의 경우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극장의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큰 LCD 스크린을 무대에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작은 스크린을 극장의 특정 구역에 배치하고 자막이 필요한 관객을 해당 좌석으로 안내하는 ‘부분적’ 공개형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LCD 스크린 대신에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문자통역을 좀 더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아니지만 2013년 상연한 내한공연 <애비뉴Q(Avenue Q)>에서 자막 텍스트에 색깔과 크기에 변화를 주어 공연뿐 아니라 자막을 보는 일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적이 있다. 가까이 자막에 창의력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무대에 텍스트를 투사하거나 텍스트를 무대 뒤편에 투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배리어프리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장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기술은 문자통역을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이다. 문자통역은 무대에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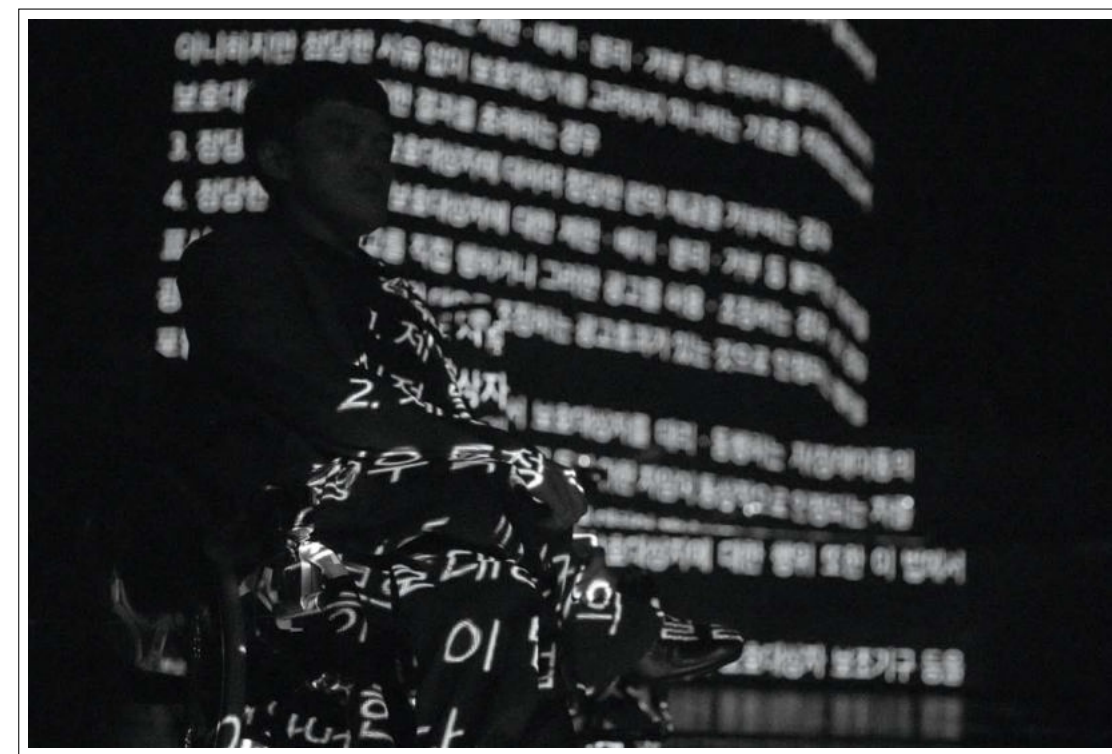


다양한 통역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의 자막

텍스트를 무대 뒤에 투사하길 원한다면 무대의 깊이가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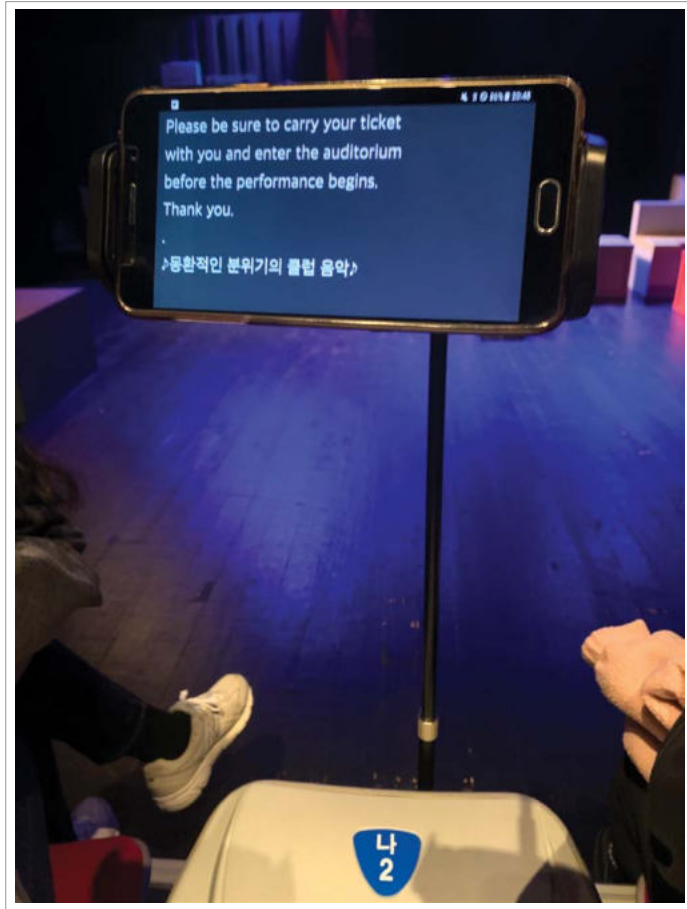
젝터로 텍스트를 투사하기에 충분히 깊은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것이 어렵다면 거울을 통해 무대 뒤에 텍스트를 투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개형 문자통역과 폐쇄형 문자통역의 장단점이 있지만 폐쇄형이 적합한 상황이 있다. 특히 배우의 움직임이 크고, 관객이 무대의 여러 곳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 공연에서, 혹은 무대 디자인에서 공개형 자막기가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폐쇄형 자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많은 공연들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을 폐쇄형 문자통역 기기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1> 김원영xOset프로젝트 공연 <사랑과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사진제공 김원영(사진 박동명)



<사진 2> 프로젝트이어 공연(2021), '로테르담'에서의 폐쇄형 문자통역 기기

사진제공: 문영민



<사진 3> 팀 통역 방식으로 진행된 연극 7분

사진제공: 극단 파수꾼



태블릿을 사용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한데 관객이 시선을 적게 옮기도록 하기 위하여 무대보다 객석이 높은 층에 있고 관객이 무대와 태블릿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태블릿은 장시간 들고 있기 무겁기 때문에 스탠드에 고정하거나 앞좌석에 고정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는 AUD(Auditory Universal Design)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일부 공연에서 활용한 적이 있다. 최근 애플글래스나 페이스북글래스 등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므로 향후 공연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공연의 트레일러나 완성된 작품, 창작자들의 인터뷰나 대화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에 자막을 넣는 것은 작품이 더 넓은 관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튜브(YouTube)나 비메오(Vimeo)에서 작업에 자막을 넣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처: AUD 사회적협동조합 유튜브 채널

자기루프 시스템, 적외선 및 FM 송수신 장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집단보청설비인 자기루프(Loop) 시스템, 적외선 및 FM 송수신 장치 등도 공연장에 설치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장치 중 하나이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20-나-3)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 공연장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공연장, 공항, 지하철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자기루프 시스템, 적외선 및 FM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유도코일이 내장된 보청기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주변의 잡음 없이 소리를 전달받을 수 있다. 끝으로 공연예술에서의 배리어프리 기술 적용에 앞서 필요한 두 가지를 짚어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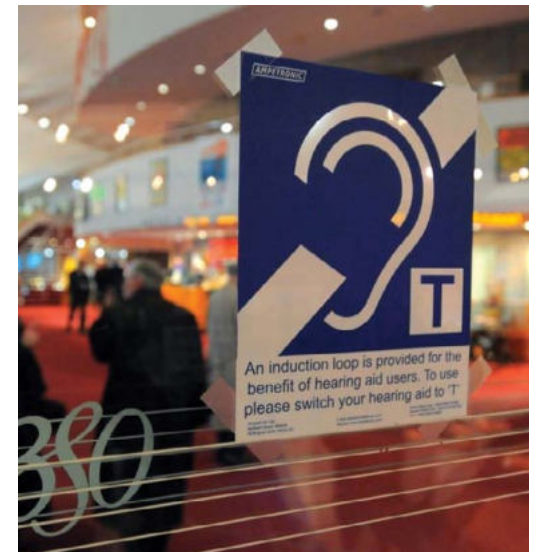
첫째,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을 특정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서 상영하더라도 무대의 언어를 수어로, 문자통역의 언어로 통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텍스트를 수어로 변환하는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지만, 무대에서의 수어통역은 단순히 내용을 변환하는 것에 그치는 작업이 아니다. 통역사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맥락에 맞는 단어의 선택이 수반되어야 한다. 문자통역 역시 대본을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상영하는 작업이 아니며, 무대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가 문자통역사의 '해석'을 통해 관객에게 도달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대에서 기술을 어떻게 드러낼 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다. 관객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통역기와 조명의 위치는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자기루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 배리어프리한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무대에서 기술을 적용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는 창작자의 미학과 기예의 영역에 맡겨진다. 장애인과 창작자가 배리어프리한 공연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지만, 기술을 무대에서 실제로 구현가능하게 하는 결국 그 역량이 융합되도록 하는 사람의 노력, 자원, 그리고 기획일 것이다. ◀

글 — 문영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공연으로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알리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현재 이음온라인(eumark)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공연의 트레일러나 완성된 작품, 창작자들의 인터뷰나 대화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에 자막을 넣는 것은 작품이 더 넓은 관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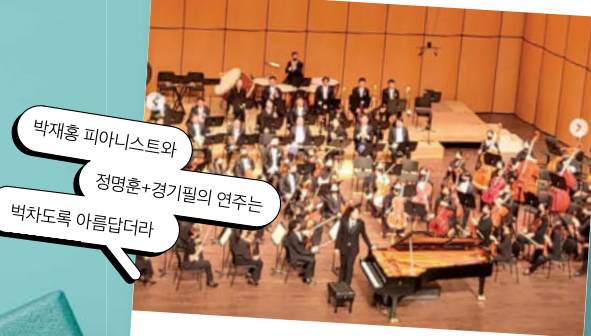


해외에서 활용 중인 자기루프 시스템
출처: www.provision.co.nz

BIMONTHLY
FEED#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벌써 1년이 끝나가네 다들 잘 지냈어?”
그리웠던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누구든 어디든
‘희로애락이 공존했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요즘입니다.
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고 싶은 경기아트센터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담아볼까요?

duetome



박재홍 피아니스트와
정명훈+경기필의 연주는
벽차도록 아름답더라

❤️ #차피협1번 #비창 #정명훈 #피아니스트박재홍

박재홍, 정명훈, 경기필의 차이콥스키교향곡 6번
섬세한 터치에 물방울이 도르르
악보 없이 지휘하는 뒷모습에서
비창의 감정이 전해진다.
휘몰아치는 3악장 끝나고 호흡...
4악장의 마지막, 깊고 긴 여운에 숨이 멎을 뻔

pollini



피아노가 다른가?
소리가 어쩔 이렇게도 좋을까!

❤️ #경기필하모닉 #박재홍 #차이콥스키

“음표로 온몸을 맞는 기분이야
정말 엄청나 꼭 들어봐”
압도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피아니스트 박재홍!
1열에서 정명훈 지휘자님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고,
경기필이야 말해 뭐해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았다.
특히 채유리 첼로 수석님 카리스마에 저 반했어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i.hb



깊어가는 가을,
오감으로 즐기는
경기클래식페스티벌~

❤️ #경기클래식페스티벌 #퇴근후클래식 #아외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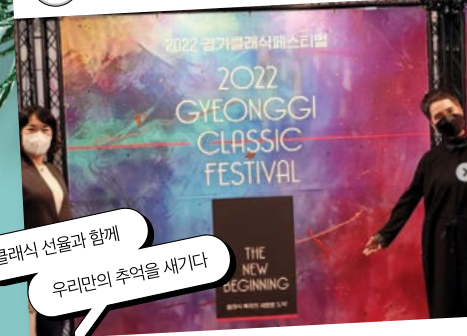
매년 가을마다 열리는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을 보러
퇴근 후 서둘러 경기아트센터로~
슈베르트 현악 5중주 마지막 악장에서
알레그레토로 현란하게 몰아치는 연주에 소름이...
선근가든 야외석에서 생중계도 해줘서
밖에서 봐도 좋을듯 :)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freelance_with_dongybear



클래식 선율과 함께
우리만의 추억을 새기다

❤️ #경기아트센터 #수원 #문화생활 #취미생활

오늘의 문화생활 : 2022 경기클래식페스티벌
ack to life with 3 sl.
Bach, Beethoven, Brahms의 명곡을 들으러 왔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 송영환이
예술감독과 연주자로 참여해서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다.

leedongyeun



한층 더 빛을 발하는 탁월한 리듬감~
음악적 센스가 짱이네!!

❤️ #시나위오케스트라 #일렉트로닉음악 #라이언클래드

“시나위 일렉트로니카2”
해파리, 이일우, 라이언클래드, 임용주 그리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업한 4개의 작품.
종묘제례악, 창작양상블, 판국, 정악단을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해체하는
파격적인 실험은 돋보였다.

soo_2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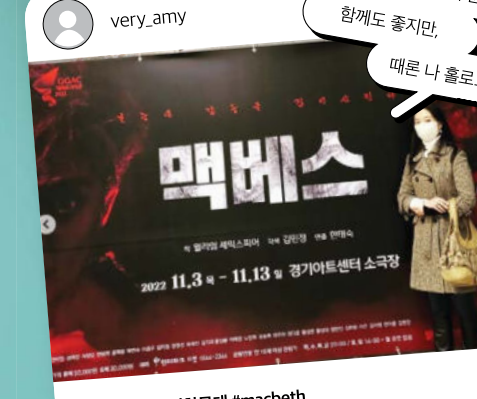


배우와 연출의 힘!
고퀄리티 작품 잘 보고 왔습니다^^

❤️ #연극맥베스 #맥베스 #경기도극단레퍼토리

고전이라 어려울 거라 생각한 건 나의 착각?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 그리고 무대에 몸을 맡긴 채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답이지!
반복되듯 흘러가는 일상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어 감사하다.
멋진 극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very_amy



혼자만의 문화생활!
함께도 좋지만,
때론 나 홀로도 좋아~

❤️ #연극 #강렬한무대 #macbeth

강렬하다! 아주 강렬하다!
원작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멋진 현대적 재해석 ㅎㅎ
이번 연극에서 기억하고 싶은 이름들.
꿈에 나올 것만 같은 눈빛 전박찬
소름 끼쳤던 성영진, 응원하는 이애린
그리고 무대 디자이너 이태섭

우연히 낚아버린 해! 이 해를 어떻게 돌려놓지?



해를 낚은 할아버지

20 | 12. 24. 토요일 15:00, 19:00
22 | 12. 25. 일요일 11:00,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GGAC NOW

경기아트센터의 이야기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예술과만남 TF팀 ACE

GGAC 윈터 스페셜

GGAC에서 즐기는 겨울 콘서트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캘린더

2022년 12월~2023년 1월 주요 공연 일정

예술과만남 활용백서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GGAC's

North

South

*바로 지금 여기!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경기아트센터의 이야기를 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예술과만남> TF팀 ACE

글 편집부
사진 강권신

경기아트센터의 문화예술 매거진 <예술과만남>은 우리의 손에 닿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ACE(Art Center Editors)는 매거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센터 내부 직원을 선발, 구성한 TF팀이다. 한 해 동안 보다 나은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며 제작을 이끌어온 멤버 중 3명을 2022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특별히 초대했다.

▶ 이외에 2022년을 함께한 ACE 멤버들

허명현(언론홍보팀), 정재영(대외사업팀), 이종한(경영지원팀), 이정현(공연사업팀), 나지원(공연사업팀), 이선명(경기도무용단), 조아라(경기필하모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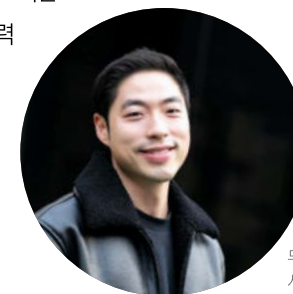
다른 시선과
생각의
어울림

<예술과만남> TF팀 활동의 시작은 2018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예만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지난해까지 운영된 후 올해

부터는 ACE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 부서나 연령과는 무관하게 선착순으로 멤버를 모집하는데, 몇 시간 만에 마감될 만큼 내부에서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선발 후 두 달에 한 번 발간 주기에 맞추어 정기모임과 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활동의 핵심이죠." (언론홍보팀 탁나희 주임) 1년 주기로 활동하게 되는 10명 내외의 멤버는 매년 초 센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되며, 경영과 공연을 비롯한 예술단까지 멤버들은 다채로운 부서 출신으로 구성된다.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각자의 부서에서 일하다보면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의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시선과 생각을 한자리에서 모으는 과정은 TF팀 멤버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제가 무대기술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무대 기술과 디자인에 관심이 가는데요.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주제를 더 많이 다뤘으면 하고요."

기계감독으로 근무 중인 서동권 대리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개인적인 관심 분야와 맡은 업무는 다르지만
이같은 다양성은 곧 창조의 원동력
이라 할 수 있다.



무대기술팀 기계감독
서동권 대리

안전시설팀 이승헌 대리

벌써 두 번째 활동이지만 'TF팀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한 해였습니다. 전쟁, 사건·사고 등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잠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생활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면서 긍정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려운 상황도 결국 지나갔네요. 새해에도 <예술과만남>이 지금보다 더 좋은 매거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무대기술팀 기계감독 서동권 대리

아무래도 TF팀 멤버 각자의 전공과 담당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각도에서 예술과만남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보다 새롭게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톨(Tool)도 얻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뜻깊고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언론홍보팀 탁나희 주임

지난해 아쉽게도 항상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모니터링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올해는 좀 더 가깝고 편히 더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덕분에 어느 때보다 아이디어가 풍성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멤버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시설팀
이승헌 대리

함께 채우고
나누는
소통의 시간

각자의 업무로 바쁜 가운데 TF 활동이 번거
로울 수 있지만, 정작 멤버들은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고 이야기한다.

"활동을 준비하며 솔직히 이전에는 잘 보지 않던 책과 시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지식도 쌓을 수 있어 2회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연말이 참여한 안전시설팀의 이승헌 대리 역시 '직장생활의 의욕이 떨어지던 시기, 자기계발의 기회가 되었다며 TF 활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전했다.

물론 활동에 따른 특전도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도서·음반 구입 지원'을 들 수 있다. 인문·예술·과학 등 새로운 아이디어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동시에 소홀해지기 쉬운 독서와 문화생활을 돕는 색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타 공연장을 비롯한 지역 내 이색 공간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과만남>뿐 아니라 경기아트센터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비대면을 지나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지만 우린 아직도 소통이 고픈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기아트센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목표와 생각을 공유하는 TF 활동은 더욱 값지게 빛났다. '내년에는 한층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며, 앞으로도 직단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언론홍보팀
탁나희 주임

GGAC에서 즐기는 겨울 콘서트

어느새 성큼 다가온 2022년의 마지막!

뭘 하면 좋을지 고민이시죠?

연말 분위기를 잔뜩 느낄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연시는 GGAC와 함께!

콘서트, 뮤지컬 그리고 마술쇼까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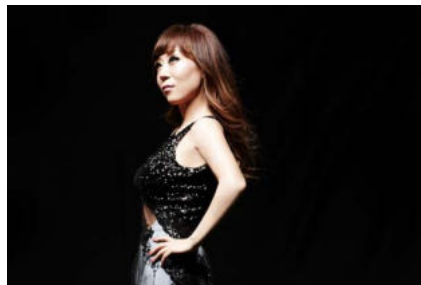


변진섭 콘서트 <변천사>

1987년 데뷔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한국 발라드의 레전드! 변진섭이 전국투어 콘서트 <변천사>로 팬들을 만난다. 오는 12월 4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서 변진섭은 '새들처럼', '네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너에게로 또다시' 등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온 대표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탄탄한 라이브 실력으로 유명한 만큼, 이번 콘서트 역시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12월 4일(일) 17:00

문의 : 1544-9857 (라이브아트)



2022 조수미 콘서트 <In Love>

전 세계 무대를 누비며 최정상의 위치를 지켜온 소프라노 조수미가 올 겨울 한국 관객을 찾아온다.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자리매김해온 그녀는 클래식, 오페라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영화 O.S.T 등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다. 특히, 우리 가곡 및 가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음반 및 무대들은 고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이번 콘서트는 12월 발매 예정인 한국 노래집 <In Love>의 수록곡과 더불어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명곡들을 선보이며, 더욱 풍성한 무대를 위해 군포프라임필 오케스트라, 테너 장주훈, 해금 연주자 나리가 함께한다. 한 해의 끝자락, 천상의 목소리와 함께 감동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일시 : 12월 8일(목) 19:30

문의 : 1588-0766 (공연마루)



거미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BE ORIGIN>

발라드 여제 '거미'가 돌아왔다! 데뷔 20주년을 맞은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는 거미가 오는 12월 10일, 11일 이틀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거미는 지난해 2년 만에 개최된 전국투어 콘서트 <다시, Winter Ballad>에서 완성도 높은 라이브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위로를 주는 힐링 스토리로 호평을 받으며 13개 도시에서 3만여 관객들을 모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2023 전국투어는 콘서트의 타이틀인 <BE ORIGIN>처럼 거미의 노래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별의 상처로부터 치유 받았던 지난날 우리를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예고한다.

일시 : 12월 10일(토) 18:00 / 12월 11일(일) 16:00

문의 : 1588-0766 (공연마루)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

국내 초연 10주년을 맞이한 뮤지컬 <엘리자벳>이 경기아트센터를 찾는다. <엘리자벳>은 27년간 12개국에서 누적 관객 1,100만 명을 기록한 스테디셀러 극으로 역사와 판타지 요소를 결합해, 650년 전통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고전미를 담은 의상과 세트, 무대예술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이번 10주년 공연에는 손꼽히는 뮤지컬 배우가 대거 출연하여 눈길을 끈다. 엘리자벳 역의 옥주현과 이지혜를 비롯하여 이지훈, 민영기 등 수많은 뮤지컬에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던 배우들이 이번 무대에서 함께한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노래와 춤이 가득한 화려한 무대와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한껏 내보자.

일시 : 12월 23일(금) ~ 12월 25일(일)

문의 : 1588-0766 (공연마루)



이은결 <더 일루션 - 마스터피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지션이자 일루션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일루서니스트 이은결이 연말연시를 맞아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공연을 준비했다. <더 일루션(THE ILLUSION)>은 이은결의 20년 넘는 내공이 담긴 작품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12년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쳤다. 무엇보다 독창적인 무대 표현과 예술적 상상력에 기술을 조화시켜 황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12월 31일과 1월 1일 이은결과 함께하는 마법 같은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일시 : 12월 31일(토) / 2023년 1월 1일(일)

문의 : 1544-9857 (라이브아트)



멜로망스 콘서트 <Festival>

새해를 맞아 멜로망스가 경기아트센터를 찾는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 'Festival'은 '민트멜망(민고 듣는 멜로망스)'이라는 수식어로 사랑받고 있는 멜로망스의 첫 전국투어 콘서트이자, 데뷔 이래 최대 규모의 공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약 3년 만에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로, 그간 멜로망스의 공연을 간절히 기다려왔을 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공연 타이틀인 <Festival>은 활동 제2막,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내딛는 멜로망스가 올 겨울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축제로 초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주행 신화'를 이루며 MZ세대에게 사랑받은 히트곡 '선물'을 비롯해, '동화', '인사', '취중고백' 등 다수의 히트곡을 이번 전국투어에서 선보인다. 김민석의 힐링 보이스와 정동환의 황홀한 피아노 연주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한겨울 추위를 녹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 2023년 1월 7일(토) 17:00 / 1월 8일(일) 16:00

문의 : 1544-7543 (쇼플러스)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www.ggac.or.kr

12+01
2022 + 2023
Vol.159

경기아트센터, 2022년 하반기 신규 입사자 임용장 수여

10월 1일, 경기아트센터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합격한 신규 입사자 4명(문건한, 정혜윤, 인수용, 한지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블라인드 전형으로 경기도 산하 21개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62.2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월 11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9월 3일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9월 22일 경기아트센터 내 회의실에서 경기아트센터 임원진과 외부 면접관 참석 하에 발표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필기시험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를 도입하였다.

약 1주의 교육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백스테이지 투어 등 공연예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진 신입사원들은 10월 1일부로 공연사업 부문, 무대기술 부문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 부서에 배정되어 센터의 일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다.



재한미안마 학생 및 근로자,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헌혈행사 개최

재한미안마 학생 및 경기도 내 미안마 근로자들이 12월 10일 경기아트센터 광장에서 단체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미안마의 민주화를 위해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해온 재한미안마 학생회는 그간 자국 민주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꾸준히 헌혈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아트센터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헌혈 차량에서 진행하며 약 80명의 국내 거주 미안마인들이 참가하여 혈액을 기증할 예정이다. 기증된 혈액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진 도내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한편 경기아트센터는 기획공연, 전시 등을 통해 미안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재한미안마인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무대! 12월 어린이 공연 소식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연말, 경기아트센터에는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12월에는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있다.

12월 3일에는 어린이 국악 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가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본 공연은 대중적인 국악 공연을 펼치고 있는 그룹 '판소리공장 바닷소리'가 <흥부가>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개작한 판소리 뮤지컬이다. 아이들도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노래와 어른들이 함께 보아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특징이다.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인형극 <해를 낚은 할아버지>를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그림책을 원작으로 하는 본 공연은 '해와 달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형극이다. 숙련된 배우들의 섬세한 인형 연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두 공연 모두 만 36개월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예매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 및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공연예술과 첨단기술의 만남, 경기아트센터 XR 기술 활용한 공연 영상 콘텐츠 만든다

최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HR) 등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현실에서 경험하는 듯한 실감 콘텐츠들이 주목받고있다. 경기아트센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연 영상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본 영상 콘텐츠는 경기도 소재 XR 특수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제작될 예정이며, 세계 무대를 휩쓸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비보이(B-Boy)팀 '진조크루'가 출연하여 역동적인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XR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연예술계에서 쉽게 보기 힘든 XR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우수한 아티스트 및 공연 콘텐츠를 더욱 실감나는 영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경기아트센터·경기도극단, '2023 창작희곡공모전' 개최, 우수 창작 희곡 작품 발굴한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극단은 우수 창작 희곡 작품을 발굴하고 연극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2023 창작희곡공모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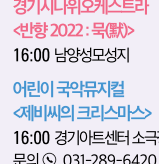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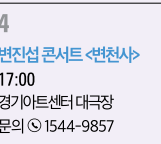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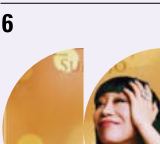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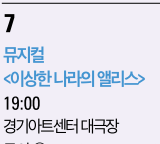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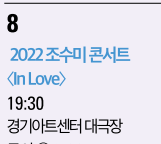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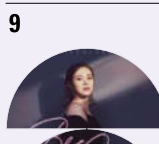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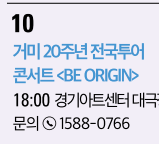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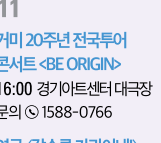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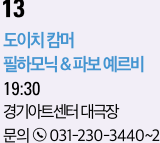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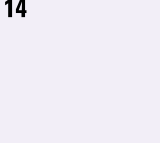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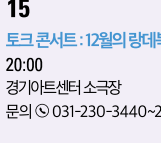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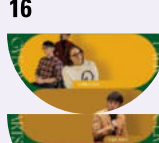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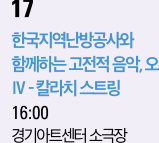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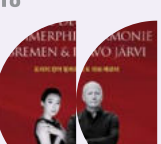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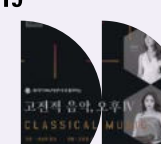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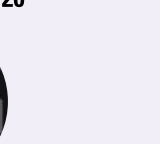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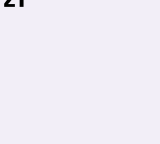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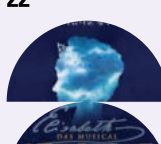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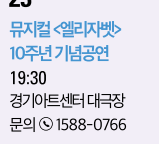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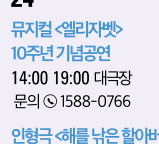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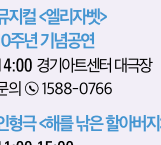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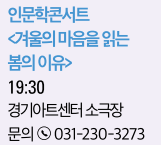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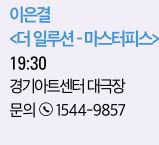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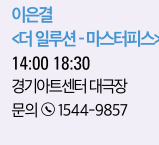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희곡 공모전으로, 2020년 공모전에서는 박진희 작가의 장막희곡 <위대한 빠>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경기도극단 레퍼토리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2023 창작희곡공모전'은 신진 및 기성작가의 미발표 작품(장막희곡)을 대상으로 하며, 소재와 분량의 제한은 없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가의 신상을 가린 1, 2차 블라인드 심사를 거친 최종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 원이 수여된다.

공모신청서 및 작품 원고는 1월 2일(월)부터 17일(화) 15:00까지 이메일(drama@ggac.or.kr)로 접수 가능하며,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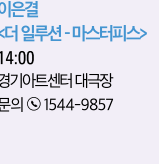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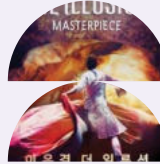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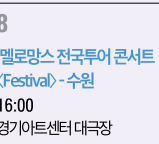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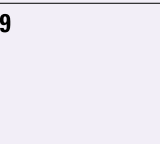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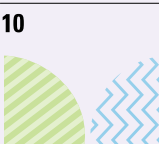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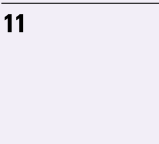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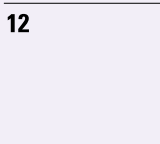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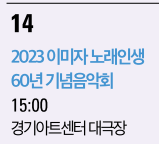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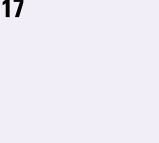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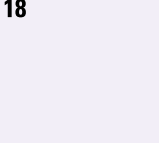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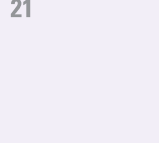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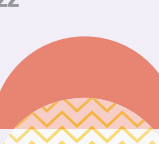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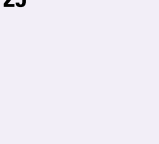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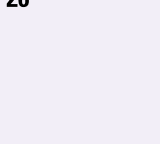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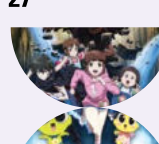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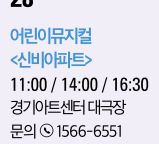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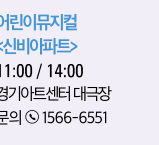


12 DEC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2 : 목궐> 20: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89-6471~647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반향 2022 : 목궐> 16:00 남양성모성지 어린이 국악뮤지컬 <재비씨의 크리스마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89-6420	
4	5	6	7	8	9	10
						
변진섭 콘서트 <변천사>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9857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19: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2	2022 조수미 콘서트 <In Love>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거미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BE ORIGIN>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15:00 19: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2
11	12	13	14	15	16	17
						
거미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BE ORIGIN>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연극 <갈수록 가관이네>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2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 파보 예르비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031-230-3440~2		토크 콘서트 : 12월의 랑데북 20: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2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고전적 음악, 오후 IV - 칼라치 스트링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0~2
18	19	20	21	22	23	24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 14:00 19:00 대극장 문의 ☎ 1588-0766 인형극 <해를 닮은 할아버지> 15:00 19:00 소극장 문의 ☎ 031-230-3441
25	26	27	28	29	30	31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기념공연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88-0766 인형극 <해를 닮은 할아버지> 11:00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441				인문학콘서트 <겨울의 마음을 읽는 불의 이유> 19: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31-230-3273	이은결 <더 일루션 - 마스터피스>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9857	이은결 <더 일루션 - 마스터피스> 14:00 18: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9857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예술단 기획공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1 JAN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이은결 <더 일루션 - 마스터피스>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9857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Festival> - 수원 17: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6399
8	9	10	11	12	13	14
						
멜로망스 전국투어 콘서트 <Festival> - 수원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44-6399					노재민 60년 기념 음악회 15: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2023 이미지 노래인생 60년 기념음악회 15: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 11:00 / 14:00 /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29	30	31				
						
어린이뮤지컬 <신비아파트> 11:00 / 14: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 1566-6551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예술과만남 슬기로운 탐구생활

<예술과만남>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채로운 공연 소식과
아티스트, 숨은 이야기, 국내외 문화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예술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
경기아트센터 소식이 더 궁금하시다면
linktr.ee/ggac
16488 Suwon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인계동)

@ggac_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감 넘치는
공연 열기를 전합니다. 다양한 SNS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경기아트센터
5시간 ·

경기도국단의 2022 마지막 선택
2022 레퍼토리시즌 연극 <맥베스>
본능은 갈등을 집어삼킨다.
#셰익스피어#4대비극#경기도국단#한태숙
공연정보
연극 <맥베스>... 더 보기

@ggac.official

경기아트센터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입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마련한 문화예술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친구 552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술과만남> 12+1월호 발간!

홈 소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아트센터 예술과만남'

경기아트센터 대표 매거진 <예술과만남>의
콘텐츠와 프로모션 소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술, 경기아트센터의 공식 YouTube Channel입니다. 내
손안에서 펼쳐지는 명작 공연 실황 등 깍!
tv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실시간 공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과 SNS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양한 글말과 사진, 포스트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예술과만남>은 국악과 클래식, 연극 등 경기아트센터의 각종 공연 소식과 일정, 인터뷰, 뉴스 정보 등 다방면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 매거진입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magazine@ggac.or.kr

경기아트센터 기획공연
시그니처
브랜드
시리즈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Gyeonggi Arts Center

장유진
VIOLIN



이한나
VIOLA

심준호
CELLO



녹색채움에너지, 한난 | 한국지역난방공사 와 함께하는

고전적 음악, 오후IV CLASSICAL MUSIC

가온 : 세상의 중심 진행 | 김호정 기자

2022.12.17.SAT.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출연진 | 칼라치 스트링 (장유진 Violin, 이한나 Viola, 심준호 Cello)

티켓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관람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 인터파크 1544-2344 ticket.interpark.com | 문의 경기아트센터 031-230-3440 ggac.or.kr

※ 공연 후 커피와 다과가 제공됩니다

